

**캘리포니아 바뀐 법 3면**  
최저 임금 15.50달러, 무단  
횡단 합법, 유급 병가 확대

**2023년 재정 전략 9면**  
장롱 현금 빼 투자하고, 불필  
요한 회비 끊고...

**소셜 연금 11면**  
조기 소셜연금 받다가  
장애인 연금으로 변경

**교육 17면**  
조기전형, 정시전형, 보류  
그리고 대기자

**City Hiking 29면**  
공원에서 길 건너 산길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



2023년은 계묘년(癸卯)으로 검은색을 뜻하는 계(癸, 육십갑자의 40번째)와 토끼의 묘(卯, 12간자의 4번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 토끼' 해로도 부릅니다. 팬더믹에 인플레이션, 전쟁 등 거칠고 험했던 호랑이해가 역사의 뒷길로 멀찌감치 달아나고 온화한 토끼의 해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올해는 독자분들 모두가 소원하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캘리포니아 남쪽 사막지역에 위치한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에 100년을 기약하는 대형 팬팜 트리 군락 '팬팜오아시스' 군집이 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제공하는 생명체의 보고이지요. 75피트 높이에 둘레만 6피트가 넘는 팬팜은 20피트 넘는 뿌리를 이용해 샌안드레스 지진대 바위틈의 물길을 찾아주고 넓은 입사귀 그늘로 사막 동식물의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온화한 토끼의 마음으로 올 한해 사막의 오아시스 처럼 넉넉하고 풍성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는 여유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US메트로뉴스 일동) 기사 14면

# 은퇴 플랜 RMD 73세로 상향

## Cover story 은퇴 안정법 2.0

은퇴 안정법 SECURE 2.0, 은퇴 대책 독려  
401(k)에 2,500달러까지 비상금 적립  
직원 은퇴 플랜 가입 때 보너스 제공

직장 은퇴 플랜 장려와 RMD 연령 상향 등을 담은 '은퇴 안정법 2.0'(SECURE 2.0)이 올해부터 발효 됐다. 이 은퇴 안정법은 지난해 말 1조7,000억 달러의 대규모 연방 예산안에 포함돼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의 많은 조항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돼 새로 바뀌는 은퇴 재정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전통 IRA나 401(k) 은퇴 플랜에 적용되는 '최소 의무 배분금'(RMD) 연령이 73세로 상향했다. 또 RMD를 받지 않을 때 적용되는 50% 벌금도 25%로 내렸다.

▶종업원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플랜 개설 비용에 대해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401(k)에 가입한 종업원은 최대 2,500달러까지 비상금을 적립했다가 급할 때 세금이나 조기 인출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고용주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만큼 은퇴플랜에 매칭 펀드로 돌려 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401(k) 은퇴 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장수 어누이티'로 불리는 QLAC의 최대 투자금은 20만 달러로 상향된다. 이

QLAC는 RMD 없이 80~85세까지 투자금을 늘린 후 말년에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용주는 새로 직장 은퇴플랜 401(k) 또는 비영리 403(b)에 가입하는 직원들에 대해 2024년부터 자동으로 급여의 3%를 적립하고 최대 15%까지 매년 1%씩 늘린다. 직원은 이를 따를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저소득 수입자의 택스 세이버스크레딧도 2027년부터 늘린다.

연방 의회는 2019년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올리는 등 '은퇴 안정법'(SECURE ACT)을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은퇴 안정법' 2.0 버전을 만들어 시니어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은퇴 대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 연구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가정 절반은 은퇴 후 표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축금이 없을 정도로 은퇴 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 RMD 연령 상향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 또는 직장 401(k)은 일정 나이가 되면 가입자가 원치 않아도 연방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 만약 찾지 않으면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6면에 계속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nleegallery.com

##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

칼럼	
최미수 변호사	18
정대용 변호사	20
김연신의 영어 한마디	22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25
이정아의 12월 추천 詩 / 수필	26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7
김동희 칼럼	30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함께합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희망 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메디케어 HMO 주치의는 **서울 메디칼 그룹**

TEL 213.389.0077 • 800.611.9862

# 최저 임금 15.50달러, 무단횡단 합법, 유급 병가 확대



## 2023년 바뀐 캘리포니아 법

### 낙태자 보호, 급여 공개 의무화 새 모피 의류 제작, 판매 금지 비 폭력 비 성범죄 기록 영구 봉인

캘리포니아는 2023년 새 법을 쏟아내고 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무단 횡단의 합법화부터 낙태 보호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새 법이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1월부터 또는 올해 안으로 시행되는 새 법을 일부 정리했다.

#### 건강보험

▶성전환자 의료 혜택 보장: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SB 107은 캘리포니아를 성전환자 건강 보험의 은신처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포함해 모든 성전환자를 보호한다. 성환자에게 필요한 약물과 정신상담 등의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내 15개 주는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의료진이나 의료시설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낙태: 연방 대법원의 연방 낙태 보호법 위헌 판결 이후 낙태 논쟁이 미국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계속 낙태법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태아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 또는 산모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때도 낙태할 수 있다. 남부 지역 주를 중심으로 낙태를 금지

하는 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낙태를 한 주민들의 정보를 낙태 금지주에 제공하지 않는다(AB 2091, AB1242). 또 낙태에 관한 교육과 낙태 시술소를 확대하며(SB1375) 낙태를 한 산모를 처벌하지 않는다(AB2223).

▶COVID 19: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직장 내 코비드 감염자 정보를 2024년까지 계속 통보한다(AB 2963). 또 코비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의사들을 캘리포니아 의사의원회가 처벌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AB2098).

####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 SB 3 (2016)에 따라 최저 임금을 전년보다 50센트 올린 15.50으로 한다.

▶급여 투명성 유지: SB 1162법에 의거해 직원 채용 시 신청자에게 급여를 사전에 공지한다. 또 성별과 인종별 급여 자료를 공개한다.

▶유급 가족 병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가족 유급 병가를 늘린다(SB 951). 급여는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잠정적으로 55%에서 60% 또는 70%로 올리고 2025년부터 주 평균 급여 이하의 직원은 급여의 90%를 유급으로 제공한다. 신생아 육아 유

급 병가를 6주에서 8주로 늘린다.

#### 공공안전 및 범죄 처벌

▶강간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DNA 데이터를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없다(SB1228).

▶감옥 내 무료 전화 사용: 캘리포니아 감옥이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무료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SB1008).

▶법원 내 랩 가사 인용 제한: 범죄 사건의 증거로 랩이나 힙합 가사와 같은 창작 표현 이용을 제한한다(AB 2799). 랩 가사를 썼다고 해서 범죄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매업체 절도: 주 검찰청 공식 웹사이트에 절도 물품을 공지하는 섹션을 만든다(AB 1700). 경찰은 조직적으로 소매 절도를 저지른 용의자를 풀어주지 않고 계속 잡아둘 수 있도록 한다(AB2294).

▶법원의 이민 신분 미공개: 공개 형사 재판에서 판사의 승인 없이는 개인의 이민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SB 836).

▶무단 횡단: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벌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AB2147).

#### 소매업

▶핑크 택스: 성별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없다(AB 1287). 같은 일상 용품이라도 여성 용품이 남성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면도기, 비누, 드라이크리닝 등등 매우 다양하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동일한 용품인데도 연간 1,300달러를 더 지불한다.

▶모피: AB 44(2019)에 따라 새 모피 의류와 악세서리의 제작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중고 모피 제품, 가죽, 인조모피, 소가죽, 양가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 포장: PFAS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이 들어간 포장지는 음식을 포장할 수 없고 판매 또는 배포도 할 수 없다. PFAS는 코팅에 사용되는 화합물질로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수

뒯물을 오염 시키며 동식물에서도 발견된다. 가정 용품에 많이 사용된다.

#### 올 하반기에 적용되는 법률

▶정신건강: SB 1338 또는 'CARE Court'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노숙자에게 법원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6개 카운티에 새로운 전담 법원을 설치한다.

6개 카운티로는 글렌,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스타니스라우스, 투얼러미다. 다른 카운티들은 2024년 말까지 새 전담 법원을 설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지 확대: AB 2011에 따라 비어 있는 소매업 공간을 주택과 커뮤니티로 전환해 저렴한 주택 공급에 나선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기: 주 검찰총장과 지방 검찰,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총기 제작회사를 소송할 수 있다(AB 1594).

존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18면에 계속

## 65세의 큰 선물!!

**메디케어 신청, 모든플랜 선택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OG15778

### 이정인 (213)503-1810

(Jessica J. Kim)

foxrainlady@gmail.com

메디케어, 오리지널, Supplement, PDP(약보험) 메디칼, Extra Help(보조)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플랜

**무료 상담**

# 메디케어 GEP

## 메디케어 가입 안했

GEP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방법은 65세 때와 동일한 절차  
파트 B 월 10%, 파트 D 월 1% 벌금  
등록한 다음 달부터 보험 혜택 시작

**Q** 미국 시민권자로 70세다. 미국에서 20년간 일해 근로 기록은 충분하다. 한국에 나가 살다가 지난달 미국에 다시 들어와 살고 있다. 65세가 됐을 때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메디케어에 등록할 수 있나.

**A** 근로 기록이 충분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파트 B는 5년 동안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월 보험료의 10%씩 벌금을 합산(50%)해 평생 내야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아무 때가 가입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기간에만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65세 되는 달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가입한다. 이를 첫 가입 기간 (IEP, Initial Enrollment Period)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직장 보험 가입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벌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벌금을 내겠다고 해서 마음먹을 때마다 가입하지 못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메디케어 '일반가입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 또는 GEP라고

부른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1~3월 GEP 기간에만 등록해야 한다. 올해 이 GEP 기간을 놓친다면 내년 G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벌금도 더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GEP 기간에 가입하는 '늦깎이'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혜택이 시작됐다. 벌금도 물고 혜택도 늦게 주는 일종의 제재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바뀌었다. GEP 기간 내 가입했다면 가입 신청을 낸 날 다음 달부터 곧바로 혜택이 시작된다. 의료 공백을 줄여가 입 다음 달부터 즉시 의료 혜택을 받을 있게 한 것이다. 또 늦게 가입한 데 따른 벌금도 줄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 일반 가입 기간 GEP

GEP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가입자들이 AEP(10월 15~12월 7일) 기간 이외에 한 차례 더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MA OEP와 동일하다. 하지만 GEP와 OEP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 등록 신청 다음 달부터 유효



IEP 기간에 메디케어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GEP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다.

GEP 기간 중 등록했다면 가입한 날 다음 달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2월 12일 가입했다면 3월 1일부터 유효하다.

등록 절차는 IEP에 했던 메디케어 등록과 동일하다.

온라인을 통해 직접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소셜 시큐리티국과 전화를 통해 등록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에 등록하면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한다. 이 카드에는 이름과 메디케어 번호, 그리고 파트 A, 파트 B 유효기간이 적혀 있다. 이를 원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라는 뜻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이 카드를 가지고 원하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의 20%와 디덕터블, 코인슈런스, 코페이 등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 주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원스톱'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에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늦게 가입하는 것이지만 첫 등록 기간 때와 동일하게 메디케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침술이나 안경, 치과, 보청기 등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추가 혜택을 주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의 48%가 어드밴티지를 선택하고 있다.

다만 전국 어디에서도 주치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메디케

어와는 달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HMO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PPO 플랜의 어드밴티지 플랜도 판매되지만 주치의의 네트워크를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의료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 처방전 파트 D 가입

만약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첫 메디케어 가입 기간에 파트 D 플랜에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늦게 가입한 데 따른 벌금을 평생 내야 한다.

파트 D를 IEP 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할 경우 매달 전국 기본 파트 D 보험료(2023년 32.74달러)의 1% 즉 1년 12%의 벌금이 보험료에 가산된다.

만약 23개월 동안 파트 D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국 기본 보험료의 25%를 벌금으로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파트 D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메디칼)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미국의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파트 D에 별도로 등록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 따라서 나중에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려면 정부가 정해 놓은 AEP 또는 SEP 기간에만 바꿀 수 있다.

자넷킴기자

### 메디케어 기본 구조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메디케어에 대한 기본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메디케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병원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 진료비와 수술비 등을 커버해

는 파트 B, 그리고 처방전 약 혜택을 받는 파트 D,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불리는 파트 C다.

###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는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이다. 이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르며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메디케어에 등록하면 메디케어 카드가 집으로 배달된다. 이 카드가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인 '오리지널' 메디케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국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주치의를 선정할 필요 없다. 원하는 의사나 병원, 시설을 마음대로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선 디덕터블이 있고 또 코페이와 코 인슈런스를 내야 한다. 특히 파트 B 비용의 20%는 가입자 부담이다. 이 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도 있다. 이를 '메디케어 보충보험' 즉, 메디갭이라고 부른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처방전 플랜 파트 D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 파트 D는 거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파트 B 보험료를 내야 하고 파트 D 보험료도 메디갭에 보험료 등등.

처음 메디케어에 가입하

## 메디케어 - 메디칼 무료상담

- ☑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보장
- ☑ 일반 건강 용품 (OTC 최대 보장)

- ☑ 한방 침술 최대 보장
- ☑ 고급 보청기 보장

Tel. (213)700.8150 Lic. 0192211

허만진

메디케어  
OEP

# 다면 GEP 기간 이용

OEP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유 관계없이 한 차례 더 변경 가능  
어드밴티지 가입자만 플랜 선택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해 결정**

**Q** 지난 AEP 기간 중에 HMO 제외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플랜을 다시 바꾸려면 연말에 있을 AEP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

**A** 아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연방정부는 주치의 제도인 파트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에 가입자에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번 더 보험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MA 변경 기간 즉 MAOEP(MA 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른다.

플랜을 바꿔야 할 사유가 없어도 된다. 그냥 바꾸고 싶다면 다른 플랜으로 바꾸면 된다. 하지만 딱 한 차례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MAOEP기간중 플랜으로 바꾸려면 플랜을 잘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들이 잘 안내해 줄 것이다.

**AEP와의 차이**

메디케어 가입자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8주간 이듬해 1년간 건강을 책임질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연례 등록

기간' (AEP) 라고 부른다. 이기간 중 10번을 바꾸고 되고 20 번을 바꾸고 된다. 맨 마지막에 선택한 플랜이 이듬해 가입자가 사용할 메디케어 보험이 된다.

AEP 기간 중에는 연방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일반 건강보험 회사의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으로도 바꿀 수 있다.

또 MA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꿀 수 있고 MA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또는 다른 보험회사 플랜으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의 플랜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AEP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했거나 직장 보험에 탈퇴 또는 만성 질환 진단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해 10월까지 플랜 변경을 할 수 없다.

플랜을 변경하지 못하면 1년간 원치 않은 보험을 계속 1년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방의회는 원치 않은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듬해 1월부터 3월까지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한차례의 기회를 더 주도록 했다. 이를 MA OEP 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 차례 더 변경 기회**

이 OEP기간은 일반 회사의 파트 C 보험(MA)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일반 건강보험사의 파트 C를 연방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꿀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입자가 파트 C 플랜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OEP기간중에는 MA에서 MA로, MA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MA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변경하려면 처방전 플랜 파트 D에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파트 D에 등록하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로 플랜이 바뀌게 된다. 더 이상 주치의가 필요 없이 마음대로 병원과 의사를 선택해 전국 어디에서도 메디케어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와 병원에서만 진료가능하다.

이럴 경우 의료비의 20%와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이 의료비 부담을 줄려면 메디케어 보충보험 즉, 메디갭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메디갭은 65세 첫 가입자 또는 직장 보험 탈퇴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병력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메디갭 플랜 판매 회사는 신청자의 병력을 따져 가

입을 거부할 수 있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일정 기간 가입을 유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되돌아가려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OEP를 두는 이유**

복잡하게 왜 그리 많은 등록 기간을 두느냐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EP기간중 새로운 MA 플랜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약값도 비싸고 또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도 거리가 멀어 이용이 몹시 불편할 경우가 생긴다.

또는 AEP 기간에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MA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처방전이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입자들이 원치 않는 보험을 1년간 유지하고 있다면 지겨운 생각이 들고 매우 큰 심적 부담이 될 것이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MA 플랜 가입자들은 첫째 3개월 동안 딱 한 차례만 플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OEP기간중 플랜을 변경했다면 플랜 유효일은 신청서를 낸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1월에 바꿨다면 2월부터 시작되며 3월에 변경했다면 4월 1일부터 유효하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는 65세 가입자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평균 400달러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매년 나이가 들수록 이 보험료는 증가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는 처방전 플랜과 함께 미국인들이 대표적인 의료비 부채를 양산하는 시니어 의료보험으로 지목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 플랜)**

MA 플랜 또는 일반적으로 파트 C로 부르다.

연방정부는 미국 시니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자 일반 건강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즉,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처방전 파트 D, 메디갭까지 포함하는 '원스톱' 메디케어 상품을 의뢰했다.

이 상품이 MA 플랜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처방전이 포함된다면 MAPD라고 부른다.

MA 플랜은 의료 건강 관리 제도이며 HMO, PPO 또는 PFFS로 운영된다.

MA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와 침술, 보청기, 안경, 운동 시설 이용, 비 처방약품, 비상 호출기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경쟁이 심한 대도시에서는 보험료가 '0' 이며 파트 B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플랜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파트 B 보험료를 돌려주는 플랜은 가입자가 연간 지불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다른 플랜보다 높을 수 있고 또 응급실, 검사 비용도 가입자가 더 많이 지불하도록 하기

때문에 플랜을 선택하기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 물론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65세가 되셨나요?

### 메디케어 신청과 가입 상담

시니어  
건강보험

CA Lic #0L06761

HMO  
(어드밴티지 플랜)

Supplement 플랜  
(보조보험 PPO)

처방약 보험

홍은주 Eun-Joo Powell

Cell: (909) 576-3236

# 미국인 절반은 은퇴 후 표준 생활 유지 어려워

RMD 연령 73세로 상향, 벌금도 25%로 낮춰  
비상 상황에 벌금 없이 1,000달러까지 조기 인출  
통털케어 보험료 지불 때도 조기 인출 벌금 면제  
로스 401(k) 가입자도 올해부터 RMD에서 제외

## Cover story

### 은퇴 안정법 2.0 1면에서 계속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불러 나갔던 은퇴 자금을 일정 나이부터 조금씩 찾아 쓰면서 밀렸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이를 '최소분배금'(RMD)이라고 부른다.

2019년 바이든 행정부는 '은퇴 안정법' 1.0을 만들어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번 '은퇴 안정법' 2.0은 2023년부터 RMD 연령을 72세에서 다시 73세로 높였다. 또 2033년부터는 75세로 대폭 높인다.

예를 들어 2022년 72세가 됐다면 이듬해인 2023년 4월 1일까지 첫 RMD를 받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3년분 RMD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RMD의 50%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바뀐 법에 따라 2023년 72세가 된다면 RMD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73세가 되는 2024년부터 첫 RMD를 2025년 4월 1일 이전까지 찾아야 한다. 그 후부터는 매년 연말까지 RMD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2019년 제정된 '유산으로 물려받은 IRA'의 10년 이내 인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의회는 RMD를 받지 않을 때 적용하는 50% 벌금도 25%로 줄였다. 또 유예 기간중 RMD를 다시 찾았다면 벌금은 10%로 낮아진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플랜을 59.5세가 되기 전에 찾아 쓴다면 찾은 금액에 대한 소득

세와 더불어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를 조금 수정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추가했고 말기 환자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벌금 없이 인출해 쓸 수 있게 했다.

또 개인 또는 가족의 비상 상황이 라면 2024년부터 최대 1,000달러까지 페널티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다만 찾은 금액은 3년 이내에 되갚아야 하지만 만약 갚지 않는다면 3년 동안은 더 이상 비상 상황 인출을 할 수 없다.

연방정부가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난 지구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한다면 역시 페널티 없이도 찾아 쓸 수 있다. 또 가정 폭력과 장기 간병 보험료로 사용한다면 역시 페널티가 면제된다.

### 고용주 은퇴 플랜 설립 장려

소규모 비즈니스가 종업원 은퇴 플랜을 제공한다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원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직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1월 1일부터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한다면 고용주는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3년 동안 최대 5,000달러까지 지출되는 첫 경비 100% 모두를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은 플랜 가입 자격이 되는 종업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종업원 50~100명 규모의 업체는 택스 크레딧이 조금 줄어든다. 또 고



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매칭 펀드로 적립금을 보조한다면 5년간 추가로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2025년부터 새로 개설되는 직장 은퇴 플랜은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3~10%를 자동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매년 1%씩 10~15%까지 적립금을 올리도록 한다. 하지만 원치 않는 종업원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50세가 넘는 직장인은 직장 은퇴 플랜에 추가로 6,5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이를 연 7,500달러로 올린다. 또 2025년부터는 60~63세 직장인은 최소 1만 1,25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 ▶'솔로 401(k)'(Solo 401(k)s)

현행 세법상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이 개인 또는 '솔로 401(k)' 은퇴 플랜을 만든다면 12월 31일까지 그해 적립금을 납부하고 플랜을 만들면 됐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정법에

따라 자영업자는 세금 보고전까지 적립금을 납부해 은퇴 플랜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기간을 늘렸다. 다시 말해 개인 사업자는 올해 4월 2022년 세금 보고까지 은퇴 플랜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500달러 이상 저축 어카운트

의회는 고용주에게 고액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게 401(k) 플랜과 연계된 '비상저축구좌'를 자동 개설해 주도록 허용했다.

종업원은 최대 2,500달러를 적립해 뒀다가 비상 상황에서 세금과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연 15만 달러 이하 수입 직원에 한한다.

### ▶선물 카드

고용주는 401(k)와 같은 은퇴 플랜에 가입하고 적립하는 직원에게 소액을 제공하거나 선물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전직 재무부 자문 마크 이우리는 401(k)등 수백 달러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은퇴 플랜에 가입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고용주의 로스 구좌 매칭

고용주는 직원의 401(k) 구좌에 '로스' 매칭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로스'란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낸 후 순수입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로스' 적립금에 매칭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적립금 매칭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

로 적립하는 '전통' 은퇴 구좌에만 적용됐었다.

이번에 바뀐 법에 따라 종업원은 '로스' 매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세금을 먼저 낸 수입으로 은퇴 플랜에 적립해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로스 401(k)에 가입한 종업원은 2024년부터 더 이상 RMD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평생 수입 조항

#### ▶IRA 자선단체 기부 롤오버

의회는 IRA 구좌 소유주가 70.5세가 지난 후 한번만 최대 5만 달러를 인출해 자선단체 기부 어누이티 또는 자선 기구 트러스트에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인출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해 찾아야 하는 RMD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IRA 소유주는 매년 구조 잔금의 5%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소득에 포함돼 세금을 내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 ▶거치 연금(deferred annuity)

은퇴 후 보장된 월수입을 원하는 많은 은퇴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매달 돈을 받는 거치 어누이티(연금)를 구입한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재무부는 QLAC로 알려진 '자격 있는 장수 어누이티'를 만들어 노년에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 구좌를 이용한 어누이티 상품이다. 다시 말해 RMD 연령이 되어도 RMD를 받지 않게 계속 돈을 은퇴 어누이티 상품에 적립했다가 말년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60대의 나이에 구입해 80 또는 85세까지 모아뒀다가 이후부터 매달 보장된 돈을 받는 것이다. 이를 QLAC라고 부르며 일정 기간 후 연금으로 받는 '거치 연금'의 일종이다.

새 법에 따라 401(k) 또는 IRA 가입자는 최대 20만 달러까지 이 평생 수입 보장 어누이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금액을 늘렸다. 종전까지 QLAC 최대 가입금은 14만 5,000달러 또는 은퇴 구좌 잔고의 25% 중 적은 쪽까지였다. 김정섭 기자



**WINDSOR REALTY**  
kenparkscore@gmail.com

Lic#01019114

**박건우(KEN PARK)**  
Realtor/Property Manager

**Cell: (213) 500-5479**  
**Fax: (323) 933-1601**

BUSINESS · COMMERCIAL · RESIDENTIAL 4465 Wilshire Bl., Suite 101, LA, CA 90010



# 어르신들의 건강 수비수!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투임을 알려드립니다.

## 확실한 건강 수비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지켜드립니다.

잘 지켜온 건강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갑자기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확실한 수비 하나로 많은 경기를 이긴 것처럼  
서울 메디칼 그룹의 훌륭한 주치의 선생님들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진료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 ✓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법 (주기적인 건강 체크)

<p>주기적인 혈압 체크</p>	<p>퇴행성 질환 관리하기</p>	<p>치아 및 눈 건강 관리하기</p>	<p>혈당 및 콜레스테롤 체크</p>	<p>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암 검진</p>
-----------------------	------------------------	-------------------------------	------------------------------	---------------------------------

※ 나에게 맞는 헬스 플랜을 건강보험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주치의를 선택하신 후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5년 연속 5스타 등급을 받은 한인 메디칼 그룹 중에서는 최고의 메디칼 그룹!

TEL 213.389.0077 • 800.611.9862

웰케어	휴매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브랜드 뉴데이	블루월드	에트나
헬스넷	스캔	얼라이언트	클레버케어

# 저렴한 주택 건설로 홈리스 해결? 비용 만만치 않다

**캘리포니아 홈리스 인구 12만 5,000명**  
**“연 81억 달러 12년간 투입해야 해결 가능”**  
**마약중독, 정신질환, 장애 등이 주요 원인**

LA의 최초 여성 시장 캐런 배스가 시장 취임 첫 과업으로 홈리스 해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홈리스들에게 호텔과 모텔을 숙소로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를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모텔 대여 비용으로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홈리스 집단 거주지 인근 모텔 업주들과 절충을 벌이고 있다.

배스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홈리스들에게 안전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 홈리스 노숙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텔과 모텔 입주는 일시적인 해결 방안으로 가격이 매우 싼 주거지 건설 등 영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홈리스들 모텔에 입주

LA시는 우선 할리우드 101 프리웨이 아래 코헨가 블러버드와 세리토스 플래스 인근의 대형 홈리스 집단 거주지에 있는 홈리스들을 모텔로 입주시키고 있다. 이곳에는 25명의 홈리스가 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해오고 있다.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난무해 주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이곳을 철거하고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다음날 다시 홈리스가 모여들어 LA에서 가장 골치아픈 홈리스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LA시는 이미 1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 홈리스 주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배스 시장은 “홈리스 주거지를 세

운다면 시는 행정명령으로 60일 이내에 건축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유틸리티 연결과 입주 승인까지 5일 이내에 완료할 것”이라면서 이번 홈리스 주택 건설 계획에 건물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또 1년 이내에 1만 7,000명 이상의 홈리스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구 400만 명의 LA시에는 4만 명의 홈리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지난달 말 LA시 비상사태를 지지하면서 카운티 보건국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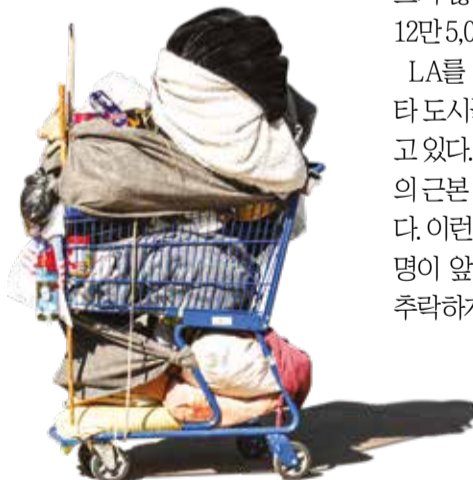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지난 2020년 팬데믹 직후 홈리스의 모텔 및 호텔 입주를 추진하면서 카운티와 도시의 동참을 호소했지만 소요 예산을 각 지방정부가 조달하기 힘들어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홈리스 대책 마련 단체들은 호텔과 모텔은 임시 거주지로 홈리스들이 가지고 다니는 개인 소지품을 버려야 한다면서 이들을 수용할 저렴한 주거지 건설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 장기적으로 거액 투입

캘리포니아 ‘홈리스 주택 대책’은 최근 포괄적인 홈리스 대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매년 81억 달러의 예산을 12년간 투입해야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후 매년 4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정부와 주 정부가 가모두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LA 비영리 주택 대책 촉구 단체 ‘코포레이션 포 서포터브 하우스’의 데이비 힐 지역 국장은 “캘리포니아는 최근 들어 이미 홈리스를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해 셸터를 확대해 홈리스 인구를 줄여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인 주택 개발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홈리스가 많은 지역이다. 홈리스 인구는 1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LA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와 기타 도시들의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홈리스 주택 마련의 근본 해결책은 더 악화만 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약 24만 명이 앞으로 1년 이내에 홈리스로 추락하게 된다.

## 홈리스의 원인 다양

약물 남용, 정신 이상, 신체 장애가 홈리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을 치료하고 수용할 병원이나 감옥, 포스터 케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주택 보조 프로그램인 주택 보조금은 대부분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바우처로 지불된다. 하지만 건물주가 바우처를 내는 가정의 입주를 거부하면 이 보조금 바우처도 무용지물이 된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바우처 거부는 불법이다.

각 지방도시들이 계속 홈리스를 위한 주택 건설을 거부한다면 홈리스 구제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만 가게 된다는 것이 옹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연간 새 아파트 11만 2,500유닛을 건설하면 향후 12년간 57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임시방편의 호텔이나 모텔 입주 계획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렌트 보조 역시 홈리스 대책이 되고는 있다.

바우처 또는 기타 주거비 보조로 앞으로 12년간 22만 5,000가정이 홈리스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이며 비용은 연간 18억 달러가 소요된다. 12년 동안 200억 달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신 만성적 홈리스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한다면 연간 4억 8,8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장애인 6만 3,00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A처럼 영구 주거지를 기다리는 동안 셸터와 모텔 바우처를 제공하는 비용은 6억 3,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고 이로 인해 3만 2,200명의 홈리스가 혜택을 받게 된다.

## 문제는 캘리포니아의 재원이다

캘리포니아는 독일을 추월해 세계 4위 경제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다. 주택 총원 계획 81억 달러는 주 예산의 3%에 그친다. 하지만 주 경제 활동의 4분의 1을 차지해 충분한 경제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22면에 계속

## 지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들으며

‘고인이 고개를 끄덕 일만한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지인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관심 있는 분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flulove@yahoo.com





# 장롱 현금 빼 투자하고, 불필요한 회비 끊고...

**은행 저축 개설, 'I 본드' 구입 등  
미국인 4분의 3은 멤버십 지출 인지 못 해  
401(k) 등 은퇴플랜 재점검 필요  
1만 7,000달러까지 가족에 증여**

올해 미국 경기가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계속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압박으로 고용시장 악화 등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경기 전망 속에 소시민들은 나름 대로의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힌 2023년 재정 전략을 정리한 것이다.

**현금을 장롱에서 꺼낸다**

장롱 속에 현금이 있다면 저축 계좌를 개설한다. 인터넷 재정 정보 사이트 '디파짓어카운티 닷컴'에 따르면 요즘 은행 저축계좌의 평균 연이자율은 0.268%다. 1,000달러를 저축했다면 막걸리 한잔 친구들과 나눠 먹을 돈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 이자율 4%를 제공하는 은행들도 있다.

현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요즘 한창 잘나가는 인플레이션-조정 'I 본드' 구입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이 채권 수익율은 6.89%나 된다. 그러나 최소 1년을 팔지 못한다.

이 채권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저축 채권으로 매년 1만 달러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채권들에 지급되는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계돼 계산되는데 지난해는 물가가 크게 뛰는 바람에 인기를 끌었다.

I 본드와 함께 은행 CD 또는 미국 재무부채권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은행 저축 이자율보다 더 높은 상품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연말 6개월 만기 국채 수익은 연이율로 계산해 4.66%였다.

집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물론 단기적으로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회비, 사용료 점검**

요즘 많은 미국인들이 살을 뺀다며 운동 시설 멤버십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회원권을 점검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중단하는 것도 좋다.

올해 초 한 재정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미국인들은 이런 회원권으로 월 2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130달러는 불필요하게 지출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의 4분의 3가량은 비용에 대해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으며 42%는 멤버십 비용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개인 소비 패턴을 점검하는 재정 앱 '로켓 머니'의 자료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 케이블 박스, 짐 멤버십, 모바일 앱 등과 관련된 월 비용이 2021년 크게 올랐다.

'로켓 머니' 회원들의 가입비 지출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도 평균 8.5% 올랐다. 이런 회원 가입비는 은행 자동 인출로 해 놓으면 가입자 허락 없이도 오를 가격을 마음대로 뽑아 가기 때문에 가입자는 회비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른다.

아마 2023년에도 이런 비용들은 계속 오를 것이므로 잘 비교해 필요 없는 지출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사용료 협상**

취소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가격 협상을 한다. 케이블 회사나 셀폰 회사들은 기존 고객보다 신규 회원에게 비용을 낮춰주고 있다. 따라서 예전의 사용료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거나 경쟁업체의 비용을 비교해 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다.

보통은 탈퇴 고객들을 막기 위해 광고하지 않은 할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셀폰 회사 등은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면 한시적으로는 사용료를 낮춰 주지만 일정 기간이 끝나면 크게 올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는 청구서를 보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빼는 것도 경비 절약의 한 방법이다.

전화의 인터넷, 또는 케이블의 '기타 비용' 등에 유의한다.



전화를 걸어 가격 흥정을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날 다시 전화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날 전화를 하면 또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401(k) 등 은퇴플랜 점검**

자동 투자 변경으로 해 놓으면 마켓이 좋지 않을 때마다 근심스럽게 어카운트를 자주 들여다보며 스트레스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최소 1년에 한번, 어카운트에 접속해 저축률과 투자 비율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S&P 500 지수는 연말까지 올해 19.3% 하락했다. 또 미국 중기 채권 펀드 역시 12.4% 추락했다. 장기 투자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투자 항목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

IRS는 최근 401(k) 적립 한계를

2023년 2,000달러 높여 연 2만 2,500달러까지 올렸다. 최근 들어 가장 큰 폭 인상이다.

또 50세 이상 직장인은 최고 3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피델리티 투자사의 마이크 샬렐 부사장은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피해야 하지만 가끔씩 장기 은퇴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은퇴플랜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플랜과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내는 '로스' 플랜으로 구분된다. 전통 플랜은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만 로스 플랜은 세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은퇴 후 과세율 등을 고려해 어떤 플랜이 유리할지 결정하면 된다.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2023년 가족들은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인원수 제한 없이 1년에 1인당 1만 7,000달러씩 나눠줄 수 있다.

1만 7,000달러 이상 돈을 줬다면 폼 709 연방 증여세 보고서를 작성해 증여금을 신고해야 한다. 초과된 돈은 평생 줄 수 있는 연방 상속 및 증여세 면제 금에서 제해진다. 2023년 개인 면제 금은 1,290만 달러까지 다.

또 세금을 내지 않고 적립하는 '전통' 은퇴 저축계좌가 있다면 72세부터 '최소 인출금' (RMD)를 찾아야 한다. RMD는 매년 연말까지 받아야 하지만 2022년 72세가 됐다면 첫 RMD를 올해 4월 1일까지 찾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50%가 벌금으로 나간다. 유산으로 받은 IRA 역시 RMD 대상이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RMD나이가 73세로 상향되며 벌금도 절반(25%)으로 줄어들었다.

김정섭 기자

**복잡한 메디케어보험 자세히 도와드립니다.**

**65세 되시는 분**  
(1958년 생)

- ☑ Part B 보험료 혜택
- ☑ Part A 또는 Part B를 늦게 받으신 분
- ☑ 타주/카운티에서 이사하신 분
- ☑ 직장 보험에서 나오시는 분
- ☑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 비용으로 고민하시는 분

(213)500-8330

조이스리 0198108

지금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도와드립니다. **Goldwell 종합보험** GOLDWELL INSURANCE SERVICES

# 소셜 연금 오른 만큼 과세 대상자도 늘어



소셜 연금도 세금 낼 수 있어  
개인 2만 5,000, 부부 3만 2,000달러 이상이면  
수입 따라 연금의 최고 50%, 85%까지  
극빈자 지원 웰페어(SSI)는 대상 아나

올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이 8.7% 올랐다. 무려 40년 만의 최대폭 인상이다.

이 연금 인상은 생활비 인상률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COLA라고 부른다. COLA의 대폭 인상에 따라 은퇴 연금 최대금액 역시 크게 올랐다.

그러나 소셜 연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모두 기뻐할 일은 아니다. 소셜 연금이 인상되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은퇴자도 연금에서 일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조기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은퇴 근로자 역시 연금액 잠정 보류(withholding) 금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는 과세 기준금은 전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연금은 생활비 인상률에 따라 계속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과세 기준점이 인상되지 않으면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 소셜 연금도 과세

얼마 전 한 독자가 전화로 소셜 연금 과세에 대해 질문하면서 10여 년 전만 해도 소셜 연금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US메트로뉴스에서는 소셜 연금의 일부가 세금 대상이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매년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라가는데 과세 기준점은 수십여 년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은퇴 전 근로 수입에서 내는 세금 처럼 많은 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 은퇴 후 소득 조정

많은 은퇴자들의 세율은 은퇴 전 보다 떨어지게 돼 있다. 근로 소득이 사라져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는 데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401(k), IRA와 같은 연금을 조금씩 꺼내 쓴다면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은퇴자 상당수가 의존해 살아가는 소셜 연금은 부분적 과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은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도 은퇴 연령에 다가가면 과세 소득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은퇴 후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수입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에 과태료가 붙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 소셜 연금 과세 계산

소셜 연금의 과세 소득 기준은 1984

년 소셜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정해진 이후 인플레이션 비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계속 동일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만약 개인 2만 5,000달러, 부부 공동 3만 2,000달러가 넘으면 소셜 연금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소셜연금 과세는 배우자 연금과 생존자 연금,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SSDI)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국민 세금에서 지불되는 극빈자 지원금 SSI는 과세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소득이 개인 2만 5,000~3만 4,000달러, 부부 3만 2,300~4만 4,000달러면 소셜 연금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세된다.

또 개인 3만 4,000달러, 부부 4만 4,000달러가 넘으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50%, 85% 과세된다고 해서 소셜 연금의 50%, 85%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자.

우선 세금 보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조정 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 즉, AGI를 계산한다. 급여, 자영업 소득, 배당금, 은퇴 저축 구좌(IRA, 401(k) 등)에서 나오는 RMD, 또는 기타 과세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이 AGI에 과세 대상이 아닌 이자 수입과 소셜 연금 전반을 더한다(AGI + 비과세 이자 수입 + 소셜연금). 이렇게 계산된 수입을 '총합계 수입'(combined income)이라고 한다.

이 '총합계 수입'이 앞서 과세 소득 기준의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50%, 85% 과세 비율이 정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셜 연금의 50%, 85%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본보 2022년 7월 자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는 본보 웹사이트 [https://usmetronews.com/index.php?mid=social&page=1&document\\_srl=5054](https://usmetronews.com/index.php?mid=social&page=1&document_srl=5054)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2022년 기준으로 소셜 연금 수령 은퇴자의 56%

가 소득세를 낸다고 밝혔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은퇴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 주 세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모두 연방 소득세다. 하지만 소셜연금에 세금을 받는 주들도 있다.

이들 주로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사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타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12개 주다.

일부 주는 연방 과세 계산법을 따르지만 일부 주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공제와 예외 조항을 두고 자체 과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웨스트버지니아는 나이가 많은 은퇴자는 세금을 받지 않으며 네브라스카는 나이가 들수록 세금을 줄이고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세금을 받지 않는다.

매년 1월 IRS는 소셜 연금 수령 은퇴자들에 지난해 받은 소셜 연금을 적은 SSA-1099를 발송한다. 이 양식을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아예 W-4V 폼을 작성해 연금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방법도 있다.

### 메디케어 보험료 과태료

소득이 많아지면 메디케어 보험료도 올라간다. 메디케어 보험료란 파트 B와 파트 D를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164.90달러다. 표준 보험료는 개인 연 수입 9만 7,000달러, 부부 19만 4,0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된다. 이 금액을 넘으면 개인 최고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 이상까지 수입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560.50달러의 보험료를 낸다.

파트 D 역시 개인 9만 7,000달러, 부부 19만 4,000달러까지는 각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상 수입이라면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 이상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76.40달러까지 보험료에 추가된 금액을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은 2년 전 세금 보고의 MAGI를 기준으로 하므로 은퇴 수입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세금과 메디케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김정섭 기자



## 다양한 “ 레크레이션 ” 프로그램

저녁까지 제공

- **질 좋은 식사**  
(아침·점심·저녁)
- **간호사·소셜워커·영양사  
상담사 등 상주**
- **IHSS·은행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K - 타운 시니어센터

3400 Olympic Blvd. LA, CA 90019  
**(323)334-4600**

### 크렌셔 커뮤니티 센터

1060 Crenshaw Blvd. LA, CA 90019  
**(213)201-7700**

(SSDI)

# 조기 소셜연금 받다가 장애인 연금으로 변경

SSDI는 만기은퇴정년 연금 100% 지급  
조기연금과 SSDI 차액은 12개월 소급  
직장상해보험과 SSDI 동시 신청 가능

**Q** 소셜시큐리티베니핏(소셜 연금, SSA)을 62세부터 받아 금액이 많지 않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다가 장애를 얻었다. 소셜 연금을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

**A** 가능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 우선 만기 은퇴 정년(FRA) 이전에 일찍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를 겪게 돼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SSDI)로 바꾸는 경우와 은퇴 나이 이전에 장애로 SSDI를 받다가 은퇴 후 소셜 연금으로 바꾸는 경우다.

▶소셜연금(SSA)을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SSDI)로 바꿀 때 소셜 연금을 일찍 받고 있다가 나중에 장애가 생긴다면 SSDI로 바꿀 수 있다. 또 일찍 은퇴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병으로 SSDI 수령 자격이 됐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차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은퇴 전 SSDI를 받고 있을 때 은퇴 연령 전에 SSDI를 받는 장애인 연금 수령자 대부분은 만기 은퇴 정년이 되면 소셜 연금으로 자동 변경된다. 하지만 연금은 변함이 없다. 장애로 인해 SSDI를 처음 신청하면 신청자 나이에 관계없이 만기 은퇴 정년(FRA)에 SSA 를 신청하는 것과 같이 간주돼 FRA에 지급될 금액 100%를 SSDI로 받는다. 다시 말해 신청자가 FRA에 받을 SSA 연금 100%를 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SSDI를 받고 있다가 은퇴 정년이 되면 자동으로 SSA로 바뀌게 되지만 대부분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처럼 건강과 관계없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셜 연금을 62세부터 조기 신청해 받고 있다. 이런 경우 FRA 이전에 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참고로 1956년생은 은퇴 정년이 66세4개월이며 1957년생은 2개월 늦은 66세6개월, 1958년생 66세8개월, 1959년생 66세10개월로 늘어나

다가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가 만기 은퇴 정년이다.

62세에 조기 연금을 받고 있다가 6개월 후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SSDI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장애 판정을 받게 된다면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만기 정년 즉, FRA에 받게 될 연금으로 바뀌 받을 수 있다. 물론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 소급 적용

또다른 케이스를 예로 들어 보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62세에 소셜 연금을 조기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의사가 이미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로 황반변성 진단을 내린 상태였다.

그런데 조기 연금을 신청해 받은 후에야 SSDI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시각 감퇴 장애가 조기 은퇴 연금을 받기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지금까지 받았던 돈과 SSDI로 받게 될 돈의 차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62세에 조기 연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SSDI를 신청했다면 모든 차액을 다 돌려 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일부 차액을 돌려 받지 못한다.

### 동시 신청

장애 연금 신청은 자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은퇴 연금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장애로 인해 62세에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한다면 소셜연금과 SSDI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단 장애 판정을 받아 SSDI가 지급될 때까지는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바뀌 받을 수 있고 또 차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위험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장애 신청의 기준은 매우 엄격해 많은 경우 거부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평생 조기 신청에 따라 줄어든 소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이 분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퇴 연금을 SSDI로 바꾸게 되면 SSDI 금액은 만기 정년에 받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은퇴 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기간중 가장 돈을 많이 번 35년간의 수입을 근거로 계산한다.

그러나 도중에 장애를 겪게 되면 근로 기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우 SSDI 금액은 21세부터 장애가 발생했을 시점까지 번 평균 금액(인플레이션 요인 계산)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질문내용과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다. 소셜시큐리티국 800-772-1213으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가까운 소셜시큐리티국을 직접 방문해 연금 변경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 SSDI와 직장 상해보험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SSDI와 직장 상해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직장 상해보험은 직장 내 부상이 심각해 장기간에 걸쳐 일을 하지 못할 때 직원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보상을 준다.

하지만 직장 상해보험만으로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의 재정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SSDI를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상해보험을 받는다면 아마도 최소 12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SSDI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의사의 진료 기록, 직장 상해보험에서 발급한 서류를 소셜시큐리티국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직장상해보험 서류가 ‘장애’ 라고 밝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SSDI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

셜시큐리티국은 자체적으로 판정 기준에 한다.

직장 상해보험을 받으면 SSDI 지급 금액이 줄어든다. 직장 보험과 SSDI를 동시에 받는다면 총 합계가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번 평균 수입의 80%를 넘지 못한다.

김정섭 기자



유

**메디케어·메디칼**

**파트B 보험료 환불플랜**  
**임플란트, 크라운, 틀니**  
**한방침술, OTC(혜택많은)**  
**보청기, 골프, 운동...**

만 65세(1958년생 이 신분) 전화 **무료** 상담!!

**정직, 경험, 실력 풍부함**

**구영순**

**(213)595-4700 / #OF37947**

**[올림픽+알바라도] (구)일서은행 2층 214호**  
**2140 W. Olympic Blvd. #214, LA, CA 90006**

귀하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플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귀하의 지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보험 플랜으로만 제한됩니다. 모든 보험에 대한 선택권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Medicare.gov 또는 1-800-MEDICARE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이기주의 상관은 부하직원 ‘팽 시키기’ 쉽게 생각

직장 생활을 오래 잘 버티려면 상사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런데 직장에는 나쁜 상관들이 꼭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사를 만나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칫 병을 얻어 평생 고생하는 직장인도 흔하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상사부터 무능한 상관까지 나쁜 상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 이런 상사를 상대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직장에서 잘 살아남아 ‘꼭대기’ 까지 올라가려면 상사의 유형을 잘 파악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상관을 대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반면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상관과 일을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나쁜 상관에도 등급이 있다. 아주 사악한 상관이 있는가 하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으로 후임 직원을 다루는 상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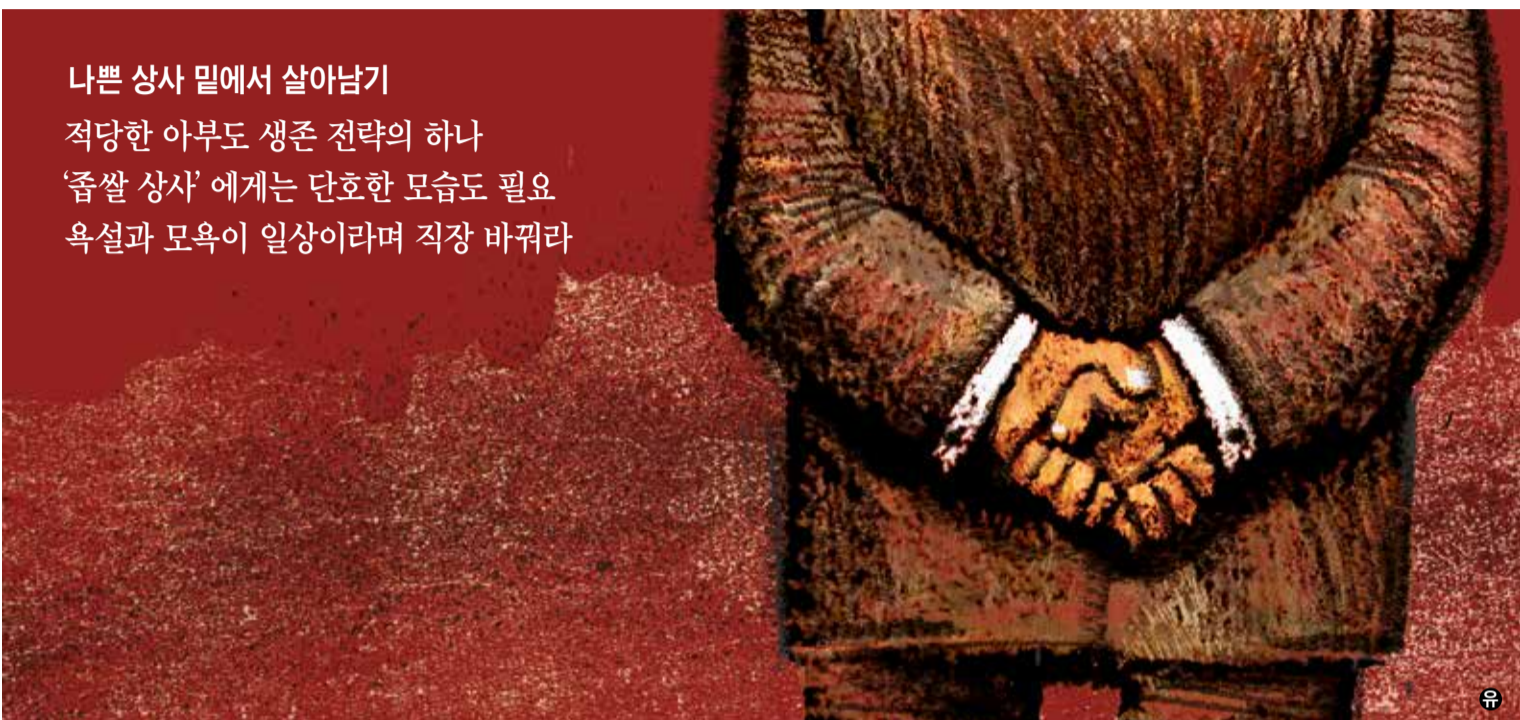
이들이 밍다고 참지 못해 사표를 던지고 뛰어나오기도 부담스럽다. 직장인들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아서 조직을 벗어나 자기 비즈니스를 개척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도 못 참겠다면 나와야겠지만 적당한 아부로 상관을 잘 달래(?) 가며 직장에서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더 웰스’ 가 직장인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나쁜 상사 대처법을 정리한 것이다.

### 자기 도취 형 이기주의 상관

가장 상대하기가 어려운 상관은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만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다.

“나쁜 직장인: 까다로운 상관과 동료 극복하기”의 저자 루이스 카나찬은 “처음 한동안은 마치 잘해 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상대방에게서 뭔가 뽑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나의 조언은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는 것”이라면서 “만약 누군가에게 잘해 주고 편의를 제공한다면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덧붙였다.

이기주의 상관은 비판을 듣기 싫어한다. 또 때로는 실수를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뒤집어씌운다.



**나쁜 상사 밑에서 살아남기**  
적당한 아부도 생존 전략의 하나  
‘좁쌀 상사’ 에게는 단호한 모습도 필요  
욕설과 모욕이 일상이라며 직장 바뀌라

‘까다로운 사람들과 일하기’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에이미 쿠퍼 하킴은 “내가 상사와 한 팀임을 보여 주며 이런 상사의 비위를 맞춰주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상관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편에서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가 이번 일을 너무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팀과 비교해 말한다면 이기적인 상관이나 동료들은 확실히 ‘이 사람은 같은 편’ 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이고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상관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절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남의 탓으로 돌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기적인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카나찬 저자는 상관인 진짜 폭력적이라면 회사나 인사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쌍소리를 하거나 고향을 지르며 괴롭힌다면 상관을 통제할 수 있는 상급자나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도 이런 학대를 견딜 수 없으며 자존감이 무너진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조언했다.

### 동네북이 되지 말라

질 나쁜 상사는 비판이 제기되면 매우 강압적이 되곤 한다. 이메일이나 텍스트 또는 기타 메시지 앱을 통해 강압적인 표현을 섞어 보냈다면 저

장해 놓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증거로 사용한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멀리 떨어져 근무하면 오히려 주변을 얼쩡거리는 상관의 학대를 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팬데믹이 일상화되면서 직장 복귀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복귀 준비가 안 된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다.

### 좁쌀이 상사

사소한 일까지 참견하는 상관은 그래도 자기 도취적 이기주의 상사보다는 다루기가 덜 힘들다. 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관리를 받는다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다.

카나찬 저자는 “이들은 상관이 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자신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느끼는 상사들이다”고 설명했다.

‘직장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의 저자이자 심리학자인 트레이시 브라워는 “이런 상관과 일하는 종업원은 필요한 것들을 단호하게 표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자율권이나 융통성을 준다면 고맙겠다’ 고 상관에게 말하라”고 덧붙였다. 또 직접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을까요”라고 상관에게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관이 두렵다는 표정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쿠퍼 하킴 박사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요청한다. 보통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느껴질까 봐서 명확하게 묻지 않거나 상관에 잘못 보일까봐 그대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다소간의 아침도 필요하다

상관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함께 지내기: 나쁜 동료까지 포함해 누군가와 일하는 방법’의 저자 에이미 겔로는 “직장에서의 관계에는 시간과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함께 해야 할 상관과 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은 생산성과 창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겔로 저자는 “아무도 비위를 맞추

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질 나쁜 상관의 자기 도취를 진정시키면 관계 개선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무능한 상관이나 아니며 스트레스 해소

무능해 보이는 상관은 나쁜 의도나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

상관도 인간이므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양질의 상관과 질 나쁜 상사의 갈림길이 생긴다. 양질의 상관은 자신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스스로 삭히며 절대 부하 직원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상관은 모조리 부하 직원에 쏟아 부어 스트레스를 준다. 마치 부하직원을 스트레스 푸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샌드백 역할을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존김기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www.yongsusanla.com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조수아 트리 남쪽 입구에 위치한 카튼우드 캠프장 인근에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제공하는 '팬 팜 오아시스' 군집이 정글처럼 펼쳐져 있다. 새와 다람쥐, 도마뱀 등 다양한 사막 동물과 식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 12월 겨울 사막의 '별 맞이' 캠핑 여행

###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

차갑지만 무공해 자연의 신선한 공기  
별빛 대신 환한 달빛 맞으며 캠프파이어  
사막의 오아시스 '팬 팜' 군집 장관  
대자연에 묻혀 도심의 때 털어낸 1박 2일

“형님 별 보러 가요” 친한 학교 후배가 별을 보러 ‘조수아 트리’(Joshua Tree)에 가자고 했다. 밤하늘에 촘촘히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는 크고 작은 무수한 별 무리들, 밤하늘을 가르며 길게 늘어진 은하수...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겨울 사막이 펼쳐는 밤하늘의 절경이 머리 위에 맴돈다.

건조한 사막의 날씨에 인공 불빛이 차단된 이곳은 달만 뜨지 않는다면 별들이 쏟아내는 장관의 천체쇼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로도 꼽힌다.

‘조수아 트리’는 LA 동쪽으로 150여 마일 떨어진 샌버나디노 카운티 모하비 사막과 콜로라도 사막에 자리잡은 국립공원이다. 사막위에 거친 가시를 뽐내며 우뚝 서 있는 선인장 이름을 딴 이곳은 유명 온천관광마을 팜스프링스, 데저트 핫스프링스 인근이기도 하다.

야경을 보려면 캠핑을 해야 한다. 다음날 떠나기로 해 캠핑 예약을 서둘렀다. 여행 일정은 금요일 일과 후 떠나 캠핑을 하고 토요일에 돌아오

는 1박 2일 코스다.

캠핑 예약은 예상보다 쉬웠다. 토요일 예약은 어렵지만 금요일 자리는 많이 남아 있었다. 더군다나 방학을 앞둔 비수기여서 캠핑족들이 그다지 많이 몰리지 않는 12월 초의 캠핑 여행이다.

금요일 일과를 마치고 밤길을 가야 하므로 10번 프리웨이에서 가장 가까운 ‘카튼우드 캠프장’(Cottonwood)으로 결정했다. 프리웨이에서 8마일 떨어진 곳이다.

#### 밤길 달리며 찾아간 캠핑 여행

조수아 트리로 출발한 시간은 12월 9일 오후 8시. 오렌지카운티 우리집을 출발해 조수아 트리까지는 130마일 거리다. 운전 시간만 빨라야 2시간 반은 족히 달려야 한다.

밤 기온은 28~30도(섭씨 영하 2~1도)로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은 것 같다. 다행히 날씨는 맑음. 토요일부터 남가주에 울겨울 첫 단비가 쏟아진다는 예보도 있었다. 겨울 파카에 두툼한 바지



캠핑의 묘미는 역시 캠프 파이어다. 적막한 사막에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다.



그리고 등산용 텐트, 슬리핑 백을 단단히 챙기고 별 무리를 구경하러 길을 떠났다.

22번-91번-60번-10번을 갈아타며 부지런히 밤길을 달렸다. 캄캄한 밤길이지만 오랜만에 야영을 한다는 기분에 들떠 피곤하지도 모르고 길을 재촉했다.

팜스프링 못미처 모롱고 밸리, 유카밸리, 조수아 트리로 갈라지는 62번 이스터 지나갔다. 이 길로 접어들면 모하비 사막을 가로질러 조수아 트리 국립공원 북쪽 입구로 안내된다. 사실 조수아 트리의 명소와 캠핑장은 거의 북쪽 모하비 사막에 몰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콜로라도 사막의 조수아트리 남쪽으로 일정을 잡았다. 조금 한적하겠지만 그래도 10

번 프리웨이에서 8마일 거리로 가까워 밤길을 더듬어 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랜초 미라지, 팜데저트, 인디오를 지나 30마일 더 달렸다. ‘카튼우드’ 캠핑장 표지판에서 좌회전하고 포장인지 흙길인지 구분하기 힘든 도로를 따라 10분쯤 달려 캠핑장에 도착했다. 오후 10시 30분이 넘었다. 먼저 도착한 원준 후배가 열심히 불을 피우고 있었다.

#### 별빛 대신 달빛 감상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 무리를 꿈꾸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별은 쏟아져 내리지 않았다. 그날이 보름날인지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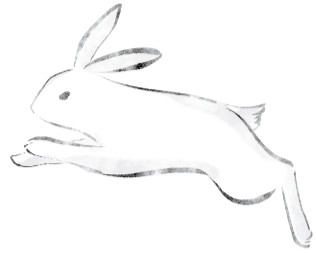
김정섭 기자 22면에 계속



조수아 트리 곳곳에 솟아오른 돌무더기 위에 오른 이원준 후배.

Member  
FDIC EQUAL HOUSING  
LENDER SBA Preferred Lender

Follow us on  
f i in



2023



# 희망으로 뛰어넘는다!

미국 최대 한인은행을 넘어

아시아계 대표 은행으로 성장한 Bank of Hope-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함께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겨내야 할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는 힘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꺾충 뛰어넘는 성공적인 한 해!

희망찬 길에 축적된 경험과 앞선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희망, 더 높이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 of Hope**<sup>®</sup>

Bankers. Experts. Neighbors.

# 현금 있다면 주택 구입 좋은 결정될 것

인플레이션으로 현금 가치 하락 막아  
상환금 고정돼 물가 변동에 영향 없어  
에퀴티 쌓이고 이자 세금 공제 받고  
집 관리비 재산세 등 부담되면 렌트를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렌트를 하고  
가다려볼 것인가.

요즘 주택 시장의 전망이 어두워  
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시장 분  
위기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금을 준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피해 주택 구입을 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주택을 구입할 때와 렌  
트를 할 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장  
단점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자.

주택 구입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산과 생활 습  
관, 거주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 집을 살 때

집을 몽땅 현금을 내고 구입하지 않  
는다면 당연히 모기지를 대출받아  
야 한다.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크  
레딧 점수가 좋아야 한다. 또 일정  
금액의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다.  
매월 갚아야 하는 모기지 대출 상환  
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올려야 하고 주택 유지비와 수리에  
필요한 유동 자금이 얼마 정도는 있  
어야 한다.

조건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준비가  
된다면 주택 소유가 주는 혜택은 매  
우 크다.

만약 고정 이자율로 모기지를 받  
는다면 장기간(30년) 매달 고정 금  
액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 재산세와  
주택 소유주 보험은 거주지역에 따  
라 매년 올라간다. 하지만 원금과 이  
자 페이먼트는 항상 동일하다. 인플  
레이션이 심해도 페이먼트는 달라  
지지 않는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  
해, 그리고 급여 상승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페이먼트 부담은 줄  
어갈게 돼 있다. 현재의 화폐 가치와  
20년 전 화폐 가치는 큰 차이를 보이  
기 때문이다.

### 에퀴티

주택을 소유하면 에퀴티 쌓이는 맛  
을 쏘쏴하게 볼 수 있다. 주택 가격  
이 올라가면 에퀴티(순 자산)가 올  
라간다. 당장 팔지 않는다고 해도 든  
든한 자산을 깔고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집을 팔면 이 에퀴티가 그대로 주  
머니에 들어온다.

집을 팔지 않더라도 집을 담보로  
목돈을 빌려 쓸 수 있다. 또 늘어나  
는 에퀴티를 뺏아 주택 개량이나 기  
타 이자율 높을 부채를 갚아 버릴 수  
도 있다.

세금 혜택도 있다.

모기지가 있어 매년 내는 이자는  
세금 감면 대상이다. 또 주택을 팔아

돈이 남는다고 해도 개인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  
된다. 주인이 집에서 살면 재산세를  
낮춰주는 주도 있다.

### 주택 렌트 할 때

요즘 렌트비가 크게 올랐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적은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매달 내는 페이  
먼트는 쌓이지 않고 없어진다. 다시  
말해 장기간 페이먼트를 해도 재산  
증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택을 원하는 대로 수리  
할 수도 없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택 구입이 좋은 옵션일 것이다.

### 장점

우선 지출금이 고정돼 있다. 렌트비  
가 오를 수 있지만 렌트 계약서에 적  
힌 렌트비는 고정돼 있다. 물론 주택  
모기지도 고정될 수는 있다.

또 주택 수리와 관리 책임이 없다.  
따라서 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만  
약 집에 문제가 있다면 주인이 수리

할 것이다.

렌트를 한다고 해도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  
보험보다는 훨씬 싸다. 건물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동산 피해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유연성이 좋다. 렌트한 집에서 쉽  
게 이사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한다  
면 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절차도 복  
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부동산세가 없다. 주택 소유주는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한다. 지역에 따  
라 1년에 수천 수만달러를 내야 할  
다.

좋은 아파트를 렌트하면 수영장,  
운동실 등 부대 시설을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다. 한곳에 오래 머물러 살  
계획이 아니라면 주택 구입보다는  
렌트가 훨씬 좋은 방법이다.

또 모기지 페이먼트 대신 렌트를  
하면 돈을 저축해 투자할 수 있는 여  
분의 돈이 생길 수 있다.

### 2023년 주택 구입 전망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분석하면  
주택 구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  
황은 아니다.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은 오르고  
있고 또 주요 도시들의 렌트 가격  
도 하락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망기'를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 구입 적기를 접치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 주택 판매수  
감소세로 인해 전국 주택 가격 하락  
이라는 전망으로 보면 일단 관망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공존한  
다. 특히 모아둔 다운페이먼트는 인  
플레이션으로 인해 계속 가치는 하  
락한다. 투자 상품에 묶어 두면 필요  
할 때 급히 꺼내 주택 구입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주택을 구입  
하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격 하  
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  
다고 조언했다. 김점섭 기자

US메트로뉴스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 US메트로뉴스

종이신문과 인터넷의 장점을 접목하여 정보읽기의 효율성과 독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인 뉴스 서비스입니다.

usmetronews.com

wellbeingsus.com

US메트로뉴스





# 조기전형, 정시전형, 보류 그리고 대기자

## 지원서 접수 마감 3월 중순에 합격자 발표 특정 대학 원한다면 추가 서류 제출 바람직

지난 해 12월 중순 조기전형 결과가 발표됐고, 1월 초 정시전형 지원서 접수가 마감돼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미국 대학 입시에는 몇 가지 특이한 선발 방식들이 있다.

우선 정원 일부를 먼저 선발하는 조기전형(Early Admission)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은 정시보다 합격률이 월등히 높은 반면, 합격하면 반드시 그 대학에 입학한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립대학들이 우수한 지원자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얼리 디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얼리 액션(Early Action)으로 이는 얼리 디시전과 달리 입학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즉 합격해도 그 대학에 반드시 갈 필요는 없으며 정시 결과까지 기다린 후 나중에 입학할 대학 한 곳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다른 선발 방식은 미국 입시가 낮은 학부모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류(deferred)’와 ‘대기자(waitlisted)’란 것이다.

‘보류’와 ‘대기자’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자.

### 1. ‘보류’란?

이는 조기전형의 한 결과이다.

조기전형 지원자들을 심사하면서 대학이 이 지원자에 대해 바로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12월 조기전형 결과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통보를 받은 지원자들은 정시전형 지원자와 함께 다시 경쟁을 벌이게 되고, 심사를 거쳐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대기자란 3가지 결과 중 하나를 3월 중순에 통보받게 된다.

때문에 이 통보를 받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비록 한번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조기전형 지원자들 중 가장 뛰어난 후보들을 먼저 선발한다. 그리고 나름 괜찮은 후보들을 골

라 정시로 넘겨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 2. ‘대기자’란?

대기자 제도는 정시전형에만 있다.

이는 대학이 지원자에 대한 모든 검토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당장 합격 통보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불합격과는 다른 것이고, 이 역시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대기자로 분류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대학은 매년 신입생 정원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미국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많게는 20여개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이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복수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고, 이들 중 하나를 결정해 ‘내셔널 칼리지 디시전 데이’ (National

College Decision Day)로 불리는 5월 1일까지 입학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만약 이날까지 합격자가 입학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이 합격자가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같은 미국 대학입시의 특징으로 인해 대학들은 합격자를 선발할 때도 정원보다 많은 수를 뽑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등록할 합격자 수가 정원보다 적을 수 있다. 이때 대기자들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다.

또다른 대기자 선정 이유를 설명하자면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에 있는 지원자들인 경우다.

예를 들어 성적이나 점수는 좋은데 에세이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반대로 에세이를 통해 큰 관심을 얻었지만 성적이나 점수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대기자 결정 과정은 모든 지원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 같은 경계선에 놓인 지원자들에게는 대학이 추가로 인터뷰나 최

근의 성적, SAT 같은 표준화력평가 시험 점수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 3. 보류 또는 대기자들의 합격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두 통보 모두 여전히 합격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합격자들의 등록율도 높아 기회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보류의 경우 정시 지원자들과 다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조기보다 지원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시전형 합격자 발표 때 결과를 알게 된다. 그래서 조기전형에서 보류 통보받았을 경우 그 대학이 넘버 원 초이스라면 지원서 제출 이후 발생한 새로운 내용들, 즉 성적이나 점수 향상 또는 수상 등과 같은 추가 자료를 보내고 자신의 입학 열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약 조기전형 지원에서 보류 통보를 받은 뒤 정시 과정을 통해 합격했을 경우 입학 의무는 없다.

대기자에서 합격할 가능성은 대략

20% 정도다. 하지만 이는 대기자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들의 평균치여서 한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명문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아 약 7%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4. 주의할 점은?

정시전형에서 대기자로 분류됐을 경우 대학은 지원자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다.

만약 그 대학이 자신의 드림 스쿨이어서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을 경우 반드시 입학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게 맞다. 대신 정해진 날짜가 없는 만큼 인내를 가져야 하는데, 통상 5월 1일 이후에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류 든 대기자 든 대학에서 보내오는 이메일을 잘 챙겨야 한다. 대학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결과에 따라 차선으로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3월 중순을 전후해 거의 모든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합격한 대학들을 잘 비교해 보고 한 곳을 결정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학비보조 내용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대기자인 경우라도 앞에서 언급한 5월 1일까지는 한 대학을 결정해 입학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기자들의 추가 합격 발표는 이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날까지 한 대학에 입학의사를 전달한 후 나중에 드림 스쿨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을 경우 그때 가서 먼저 입학의사를 전한 대학에 상황을 알리고 입학의사를 철회하면 된다. 대신 입학의사를 전하면서 디파짓한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대학은 정시 합격자 발표 후 1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살펴보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

필립 기자



# 워런티 기간내 동일고장 반복되면 레몬법 저촉



**Q**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잦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판매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 매우 광범위한 질문이네요. 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질문의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레몬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답변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워런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모두 일정 마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를 받습니다. 일정 기간 또는 마일 이내에 고장이 난다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고 고쳐주겠다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러한 워런티는 '범퍼 투 범퍼' '파워 트레인' 보증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공장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장 보증증서입니다.

일부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 계약에 대한 '연장 보증'(extended warranty)을 소비자

에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증'(Warranty)이 아니므로 당사 주 레몬법에 따라 수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캘리포니아 레몬법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동일한 문제/불만/시스템에 대해 공인 보증인 또는 딜러점에서 말도 안 되는 수리 시도를 받았다면 이는 제조업체 '범퍼 투 범퍼 보증', 연장된 '파워트레인 보증', '하이브리드 보증' 또는 '하이브리드/EV 배터리 보증' 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보증 수리 부품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공인 정비소에서 30일 이상 있었을 경우.

차량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누적 총 30일 이상 정비소에서 있었을 경우(원래 신차 인도일로부터 18개월/18,000마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차량 수리 기록에 제조업체(공장)가 '수정/업데이트/소프트웨어 업데이트/솔루션' 을 작업 중이지만 아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보증 수리 부품이 장기 백오더 상태인 경우, 마지막 수리 시도 후 예상 시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차량이 공인 보증인 딜러점에 있고 딜러점에서 소비자가 공장 FSE(현장 서비스 엔지니어)가 나와 정비소에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보증인 또는 정비업체가 진단 및/또는 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문제없음' / '설계된 대로 작동' /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작동' 등으로 여러 번 수리 시도를 해 보았지만, 오히려 소비자가 문제를 쉽게 파악할 있다면 이를 비디오 테이프에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공장 보증 수리 시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문서화) 보증에 따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객 불만이 제기됩니다.

레몬법 주장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격을 갖춘 레몬 자동차 변호사와 협력하여 청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레몬법 및 대형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323) 496-2574.

최미수 변호사

레몬 법률 변호사, 대형 사고 전문 변호사.

☎문의: (323)496-2574

# 자동차 과실치사 중과실로 처벌, 전기자전거 규제

2023년 바뀐 캘리포니아 법

3면에서 계속

## 캘리포니아 올해 변경 신규 교통 법규 발표 경찰관 시민권, 영주권 없어도 가능 등 자전거 추월때는 옆 차선 이용해 천천히

▶범죄기록 봉인 : 오래된 비폭력 또는 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자의 기록을 영구히 봉인한다. 다만 찻값을 모두 치렀고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행이 유예되거나 차단될 수 있는 법

▶농장 근로자 노조화 : 캘리포니아 농장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더 쉽게 만든다. 이법은 주지사와의 노조 간부들과의 협의에 따라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 AB 257에 따라 주 정부와 근로자, 고용주 협의체를 만들어 패스트푸드 근로자 급여를 최고 22달까지 인상할 수 있고 근로 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법을 중지시키는 서명운동에 돌입해 2024년 주민 투표에 상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오일 시추 : 주 전역 주거지 인근 새 오일 시추를 제한하도록 했다. 반대 청원 서명이 벌어지고 있다.

▶교통법 : 캘리포니아에서 올해부터 교통 법규가 일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올해 변경된 주요 교통 법규를 발표했다.

▶공무원, 경찰관, 이민신분(SB 960)

훈련생을 포함해 경찰관은 연방법과 규정을 지켜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SB960은 그러나 경찰관의 자격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조항을 삭제했다. 시민권자와 영주

권자가 아니더라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캐탈리틱 컨버터(SB 1087, AB 1740)

캐탈리틱 컨버터를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는 사람과 이를 구입하는 업체는 캐탈리틱 컨버터를 떼낸 자동차의 종류, 모델, 제작사 정보를 제공, 기록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업체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캐탈리틱 컨버터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의 주요 부품으로 고가의 금속이 들어 있어 최근 빈번하게 도난당하고 있다.

▶자동차 과실치사, 과속 및 난폭 운전(SB 1472)

자동차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와 관련된 범죄를 '중과실'(gross manslaughter)로 분류한다. 여흥이나 경주 또는 시간당 100마일 이상 스피드를 내는 운전자가 인사 사고를 냈다면 '중과실 자동차 과실치사' 로 기소될 수 있다.

▶경주(AB 2000)

파킹랏과 비포장 주차 시설도 경주 자동차와 모토 경주 금지 구역으

로 확대한다.

▶긴급 실종 경보(AB 1314)

새로 만든 '페더 얼러트'(Feather Alert)는 납치, 유괴, 실종 등을 알리는 '앰버 경보'와 유사하다. 새 '페더 경보'는 경찰에게 실종 주민에 대한 정보를 라디오, TV, 소셜미디어에 공지할 수 있게 한다.

▶뺑소니 사고 : 황색 경보(Yellow Alert AB 1732)

사망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황색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고 황색 경보를 미디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이 새 법은 주 정부가 뺑소니 사건 수사를 하는 동안 지방 경찰이 공공 제보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직거래 보고(AB 1700)

주 검찰청은 제3자 온라인 상품 거래 사용자를 위해 의심되는 장물 리스트를 알려주는 온라인 섹션을 개설하도록 한다. 기록된 정보는 지역 경찰과 고속도로 순찰대의 '조직 소매 절도 범죄' 예방 태스크포드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전거 포괄법(AB 1909)

'옆으로 비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법과 유사하다. 자전거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옆 차선으로 변경한 후 천천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자전거를 추월한다. '클래스 3' 전기자동차도 자전거 도로나 트레일, 자전거 이용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방 정부가 자전거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전기 자전거의 말 통행로, 하이킹 트레일 또는 기타 여가용 트레일 진입을 금지하도록 한다.

▶전기 자전거 : 안전 및 교육 프로그램(AB 1946)

고속도로 순찰대는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과 같은 여타 교통 안전 기관과 공조해 전기 자전거 안전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기자전거 안전 운전, 비상시 사고 회피 능력, 도로 교통 및 전기자전거 법규 등을 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9월부터 고속도로 순찰대 웹사이트에서 시작한다.

 **NONGSHIM**<sup>®</sup>  
**SHIN**  
 SINCE 1986

*Just Act on Your  
 Spicy Instinct!*



## 리스차, 중고차도 레몬법 가능할까? (2)

전문가칼럼

정대용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 “리스차나 중고차도 레몬법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번 호에서는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해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리스차도 레몬법 가능한가?**

물론이다. 레몬법이란 돈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 워런티 기간 안에 발생한 고장으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교환, 환불, 보상해주도록 하는 ‘소비자권리보호법’이다. 레몬법에 있어 리스차는 구매한 차량과 동일한 자격이 있다. 요즘은 오히려 레몬법 성

공 사례 가운데 리스가 더 많다. 딜러에서 거래되는 차량 가운데 리스차량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중고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에 차를 거래할 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가 ‘이전되지 않기(not transfer)’ 때문이다. 예외는 딜러에서 ‘인증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를 구입한 때다. CPO는 일반중고차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가 따라온다. 제조사가 일정 기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Q. 꼭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레몬법에서는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장이 반복되면 충분하다. ‘반복된다’는 것은 ‘고장이 반복된다’는 뜻이지, 같은 고장이 되풀이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Q. 변호사비는 무료인가?**

손님이 내는 변호사비는 없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자동차가 레몬으로 인정받게 되

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변호사비를 내기 때문이다. 차가 레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손님에게 변호사비를 내라고 하지는 않는 변호사 사무실은 없을 것이다(최소한 우리 사무실은 그렇다).

**Q.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그동안 냈던 돈은 모두 돌려받나?**

‘대부분’ 돌려받지만 ‘전부’는 아니다. 차에 문제가 있어 딜러에 가져가기까지는 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그만큼(mileage offset)’을 제하고 돌려준다. 가령 1만 2,000마일에 처음 딜러에 차를 가져가 수리받았다면 제조사는 1만 2,000마일까지는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간주한다. 레몬법에서 차의 수명은 12만 마일이다. 따라서, 차의 수명 가운데 10% (120,000 ÷ 12,000 = 10%)만큼 문제없이 차를 사용했다고 보고 차 가격의 10%를 빼고 돌려준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딜러로 가져가 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Q. 기간 및 절차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2~3개월 걸리지만, 제조사가 레몬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질 경우 8개월 이상 걸린다. 대신, 소송으로 가면 보상액이 커지는 장점은 있다.

**Q.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제조사에 레몬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딜러 수리 기록(Service History, Invoice 또는 Repair Order)’만 있으면 된다. 레몬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계약서(Purchase/Lease Agreement) ▲등록증(Current Registration) ▲할부금 납부내역서(payment history) ▲페이오프(Payoff Quote) 등이 필요하다.

**Q. 사실 정비소 기록도 도움이 되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차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Q. 사진이나 비디오 기록은?**

있으면 유리하다. 수리 기록만 갖고서는 레몬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던 제조사가 비디오나 사진을 보내면 레몬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문의: 213-700-3159

**<필자 소개>**

‘레몬법 전도사’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상해/레몬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뻔한 기사  
한번 보고  
버려지는  
신문기사

US메트로뉴스  
오래 두고두고  
보셔도 됩니다

11살 다슬이의 그림 일기

### 새로운 한해, 새로운 기회

새해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해를 맞아 우주 비행사가 새로운 꿈과 놀라움이 가득한 우주를 탐험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처럼 2023년은 새롭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차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큰 꿈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아크릴로 토드백에 그렸습니다. 일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새해에 가졌던 큰 꿈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새로운 기대와 놀라운 기회들을 품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3년처럼.

# 여성들 심장마비 증상 미미해 오진 가능성 높아

식은 땀, 턱 또는 등 통증, 피로감, 가쁜 호흡 주요 증상  
가슴 통증이나 답답한 증상 많지 않아  
응급실서 여성은 남성보다 11분 늦게 의사 진료  
심장마비를 정신적 스트레스로 오진 많아  
젊은 여성 심장마비 발병률 높아져



심장병은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70만 명이 숨진다. 그런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심장마비의 사전 증상을 더 무시하고 있고 때로는 수 시간을 기다렸다가 911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원에 가는 경향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왜 여성은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대응에 소극적일까. 최근의 한 연구 보고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좀 더 감지하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병원 응급실에 간다고 해도 의료진은 여성들의 심장마비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대응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보건 관계 당국은 여성들의 심장질환은 광범위하게 대수롭지 않게 진단되고 또 치료도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또 이로 인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여성들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 여성 증상 미미

여성들의 치료가 늦어지고 종종 오진이 나오는 주요 원인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보고서가 지적했다.

가슴 통증 또는 답답함, 불편함 등은 남녀에 관계없이 심장마비의 공통된 증상이다. 하지만 심장마비가 오는 여성들은 가슴 통증이 남성보다 더 미미하거나 아예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신 여성들은 종종 가쁜 호흡, 식은땀, 권태감, 피로감, 턱 통증, 허리 등 통증과 같은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는 심장 마비는 가슴 통증이 없는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나 의사가 문제를 확인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심장마비 증세를 호소한다고

해도 심장 문제에서 오는 증상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곤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의사로부터 그들이 느끼는 증상은 실제 심장이 아니라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 연구보고서는 가슴 통증을 포함해 지속적인 심장병 증상을 호소해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배나 더 정신적 문제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 여성들은 진단까지 더 오래 걸려

지난달 미국심장협회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팬더믹 이전에 응급실을 방문한 수백만 건의 케이스를 비교 분석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특히 유색인종)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만날 때까지 남성보다 평균 11분은 더 기다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성들은 또 병원 입원도 남성보다 더 적었고 전체적인 검사도 더 적게 받으며 심장 문제를 감지할 수 있는 심전도(EKG)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연구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일-뉴 헤브 병원의 알렉산드라 랜스키 심장전문의는 턱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의사를 찾았던 한 환자는 치과 의사를 방문해 보라는 의사들의 권유에 따라 치과에 갔다가 어 급니 2개만 뽑은 경우도 있었다고 오진의 심각성을 전했다.

턱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이 여성은 결국 랜스키 심장전문의를 찾았고 문제가 심장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랜스키 전문의는 “턱 통증은 심장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일 ‘심혈관 연구 센터’ 국장을 맡고 있다.

### 여성 심장병 심각성 홍보 캠페인

지난 수년간 정부 보건 관계 부서들

은 다양한 공공 서비스 캠페인을 통해 심혈관 질환 치료에서의 남녀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연방정부와 미국심장협회는 공동으로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심장병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심장동맹’도 지난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수천 여곳의 라디오와 TV를 통해 여성 심장질환에 대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한 광고에서 유명 여가수 레이디 가가는 ‘심장병 증상을 알기’를 주제로 한 노래도 여성들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가가는 노래에서 여성 심장병 증상으로 식은땀, 어지럼증 또는 비정상적인 피로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한 과학 연구 보고서는 여성들이 심장질환 치료를 늦추게 하는 요인을 조사해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여성들에게 가슴 통증이나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팬더믹 이전 뉴욕의 다른 4개 병원에서 심장마비 치료를 받은 218명의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치료 및 임상 위험 관리’ 학회지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62%는 가슴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었다. 남성들은 32%만이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많은 여성 환자들은 가쁜 호흡, 메스꺼움과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장애 증상을 보인 반면 남성은 4분의 1만이 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었다.

최종적으로 심장마비가 온 여성의 72%는 병원을 가거나 911에 전화를 걸기까지 90분 이상을 소비했다. 남성은 54% 그쳤다. 또 여성의 절반가량은 911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친구나 친척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남성은 36%였다.

### 젊은 여성 심장병 증가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모닝사이드’ 병원의 심장 전문의 겸 1월 보고

목된다.

남성은 평균 61지만 여성 심장마비 환자는 평균 69세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심장마비에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연구를 보면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대사가 증가하면서 35~54세 여성들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나고 있다.

랜스키 전문의는 “많은 젊은 여성들은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고 두번째는 증상이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면서 “급성 증상과 소화불량, 가쁜 숨, 권태감, 피로감, 메스꺼움 등이 적게 나타나 문제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쉬었다면 빨간 불 경보가 될 수 있다”면서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임상 실험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치료나 관심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넷김기자

Lic #0199095

**소셜연금  
메디케어  
건강보험  
은퇴플랜**

**무료**

**“안내해 드립니다”**

**김정섭**

Wilshire4525@hotmail.com  
**(323)620-6717**

# 새해 첫출발 ‘turn over a new leaf’



김연신의  
천 냥 빚을 갚아주는  
영어 한마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작이다(The beginning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work.)”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한국보다 좀 줄여서 “시작이 삼분의 일(Making the beginning is one third of the work.)”이라고 말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다. 플라톤의 말대로라면 2023년의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한국 속담으로 따지면 올해의 전반전이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 새해를 맞아 시작과 관련된 영어 표현을 정리해 보고 계묘년에 맞춰 토끼와 관련된 관용구도 살펴보자. 시작과 관련된 흥미로운 표현은 turn over

a new leaf이다. “새 출발을 하다, 마음을 고쳐먹다”로 번역할 수 있다. leaf는 나뭇잎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책장을 뜻한다. 16세기 영어에서는 책장을 page보다는 leaf로 썼다고 한다. 즉 새로운 책장을 넘기듯이 심기일전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다. 나쁜 버릇을 버리고 앞으로는 환골탈퇴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Erin promises to turn over a new leaf if we give her one more chance. 에린은 우리가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새 출발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out with the old (and) in with the new도 간단하고 재미있는 관용구다. 말 그대로 송구영신,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와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새술은 새 부대에”와도 일맥상통한다. 새로운 다짐을 실행에 옮길 때 구호처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1월 이맘때쯤 가장 많이 들리고 새로운 사람이나 일이 등장할 때도 사용한다. With the new year comes, I’ll go to the gym everyday.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나는 새해에 맞춰 헬스클럽에 매일 갈 거야. 낡은 버릇은 버리고 새롭게 할 거야!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이 속담이 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千里之行 始於足下)”는 영어로 “A journey of a thousand

miles begins with a single step.”으로 번역한다. 미국에서도 꽤 알려진 표현이다. 천리를 따져보면 400km 정도 되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천리를 1000 miles로 썼다. 이는 1600km에 가깝다. 영어로 번역하면서 가는 길이 4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break new ground는 직역하면 새 땅을 깨다/파다 즉 첫 삽을 뜨다이지만 의미는 새로운 장을 열다, 신기원을 열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고 해석 된다. 여태껏 보지 못한,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경우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파생된 형용사가 groundbreaking(획기적인, 신기원을 이룬)이다. BTS continues to break new ground on Billboard Chart. 방탄소년단이 계속해서 빌보드차트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go/quit cold turkey도 잘 알려진 표현으로 술, 담배, 마약 등 나쁜 습관을 한 번에 완전히 끊는다는 의미다. 나쁜 습관을 단박에 물리치고 단호하게 계획을 실행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하필 “차가운 칠면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지 않다. 19세기에 쓰던 표현 talk turkey가 솔직하게 터놓고 말한다는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talk cold turkey로 변형됐고 quit cold turkey는 뭔가를 단도직입적으로 중단한다는 의미로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계묘년을 맞았으니 토끼 관련 관용구도 살펴보자. 토끼가 번식을 빠르게 한다는 특징을 잡아 “breed like rabbits: 토끼처럼 번식한다”는 표현을 쓴다. 자식을 자주 많이 낳는 사람들을 가리켜 다소 비아냥거리는 슬랭이다. go down the rabbit hole은 무언가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헤어져 나오기 힘든 곳에 빠져 허우적 된다, 탐닉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을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서 검색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rabbit hole 자체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유래한 은유적 표현으로 이상하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뜻한다.

한국 속담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다”와 같은 표현도 있다. If You Chase Two Rabbits, You Will Not Catch Either One. 불어, 러시아, 일어 등 많은 언어에도 같은 속담이 있다고 한다.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에 집중하라는 교훈은 어디서나 통하는가보다.

**김연신**

UCLA 정치학 전공 TESOL 부전공 / 라디오 코리아. 미주 한국일보 기자 / 영어 관련 블로그, 소셜미디어 그룹 운영.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iles0803>

## ‘자수아 트리’ 국립공원

**14면에서 계속**

깜깜한 밤하늘을 흰하늘로 비추는 보름달 빛 속으로 희미한 별빛이 뚝고 나오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원준 후배 부부가 준비해온 고기와 물오징어, 왕새우를 불망에 구워 한국산 과일주를 나누며 두런두런 정담을 나누다 문득 등이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다. 새벽 2시 30분. 사막의 매서운 밤 추위가 온몸을 감싼다. 서둘러 텐트로 들어갔다. 짐사람과 원준 부부는 춤다며 각각 ‘차박’을 하겠다며 들어갔다.

혹시 얼음 구경을 할까 해서 텐트에 물병을 넣어뒀다. 새벽에 목이 말라 물병을 들었지만 얼음은 없었다.

텐트 밖 하늘이 밝아왔다. 텐트 안에 제법 온기까지 감돈다.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춤지도 덤지도 않은 상쾌한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호흡을 따라 몸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얼마 만에 마셔 보는 신선함인가.

**사막의 오아시스**

사골국 넣은 떡국으로 아침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오전 11시께 짐을 챙겨 캠핑장을 나섰다. 잠시 하이킹을 즐기기로 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매스터톤 피크 트레일. 주



자수아 트리와 함께 사막에서 자라는 모하비 유카.

차장에서 왕복 3마일 거리다. 멀리 로스트팜스 오아시스까지는 왕복 8마일이다. 잔걸음으로 가도 4시간을 족히 걸린다. 그래서 짧은 거리를 택했다.

트레일 초입에 거대한 나무 무더기가 우리를 맞이한다. 킹콩이 살 것 같은 정글이다. ‘팜 팜 오아시스’라는 높이가 70~80피트 팜트리 군집이다. 덩치는 크지만 가운데는 비어 있는 거대한 팜트리. 빈 속에 수분이 가득차 불이 나도 타지 않는다고 한다.

눈으로 보는 팜트리 군집의 장관을 사진으로 담아내려 애썼지만 그리 쉽지는 않다. 대자

연의 전경을 작은 아이폰 렌즈에 담는 것이 원래부터 불가능했는지 모르겠다.

가파른 언덕을 타고 자수아 트리의 명물 돌무더기 위를 올랐다. 콜로라도 사막이 눈 아래 시원하게 펼쳐진다. 양손을 활짝 벌려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다. 도시의 찌든 때가 바람에 훌훌 날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후 2시. 1박 2일의 갑작스런 짧은 일정을 마치고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예약하기**

Recreation.gov에 접속해 캠핑 사이트 찾기(search)에서 ‘Joshua tree’를 선택한다.

이곳에는 캠핑장 9개가 있다. 8개는 62번 도로 북쪽 입구에서 들어오는 모하비 사막에 있고 1개는 인디오 방면에서 들어오는 10번 프리웨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가격은 캠핑장에 따라 20달러부터 50달러까지 다양하다.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는다.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도 있고 레인저 스테이션에서 당일 구입할 수도 있다. 가격은 차량 1대당 30달러, 62세 이상 시니어는 20달러이며 시니어 평생 입장 카드는 80달러이다. 평생 패스로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을 평생 여행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점은 분실하면 재발급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정섭 기자

## 캘리포니아 홈리스

**8면에서 계속**

핀란드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주택 우선’ 정책으로 홈리스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도 이 모델을 비슷한 방법을 쫓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주거비 인상 비율을 2.5%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또 지방 정부가 직접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원활하지 않다. 특히 갑작스러운 추락하거나 응급실에 실려 갔던 홈리스들이 다시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만성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또 있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다.

LA 카운티 남부 인접 오렌지카운티는 홈리스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연간 3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만 주거지 마련에 사용된다.

연방 정부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홈리스 한 명을 위해 연간 지원비용은 수만 달러에 달하며 이들 비용은 모두 납세자 주머니에서 조달된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의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http://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이경수 작가  
KCC(Kauai Community College,  
HI) 미술과 교수 역임. (현) Gallery  
KLBT Art Director

# 무의식의 세계를 동화처럼 풀어내



The concert



Over the town



self portrait



I and the village

## Marc Chagall

통합 요소를 갖춘 유일무이한 화법  
신비적 4차원 세계, 무한의 세계로



Les Amoureux



The bride and groom of the Eiffel Tower

‘사람들이 공중 위를 날라 다니고, 물고기가 새 처럼 하늘 위에 유유히 떠 다닌다. 꽃다발을 들고 있는 말, 허공에 둥둥 떠 다니는 악기들’은 어른들의 상상력이 아닌 순수했던 어린 시절 꿈의 이야기다. 무의식의 이야기들을 동화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풍경 속에 천진난만 하게 그림으로 풀어 나간다.

미술을 부린 듯 우리를 또 다른 신비의 세계로 초대하는 작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샤갈은 20세기 미술사에 중요한 아티스트이며, 지금까지도 미술 애호가들 에게 인기있는 작가다. 야수파적인 거침없고 대담한 색의 조화와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적인 조형, 초현실적이며 추상적이고, 은유법적인 표현이 결합된 독특한 그의 작품에선 미술사의 통합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유일무이한 화법의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러시아의 조그만 시골 마을 비테브스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Mark Chagall

샤갈은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동물들로 가득한 평화로운 마을에서 풍부한 감성을 키우며 성장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란 샤갈은 어릴적 부터 몸매 배인 종교관이 그의 일생과 작품생활을 지배 할만큼 중요했다. 그의 종교관은 평생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상의 신성화였고, 성서를 가까이 하여 그림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아픔을 달래 주기도 했다.

25세가 되던 해, 샤갈은 꿈에도 그리던 파리로 유학을 떠난다. 당시 파리는 입체파와 인상파의 많은 작가들이 집결한 곳 이었고, 그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면서 파리 생활 5년 만에 자신의 독특한 ‘샤갈의 화풍’을 이루어 낸다. 그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그의 작품에 뮤즈가 되었던 사랑하는 연인 벨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 벨라를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에는 사랑의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을 받고 행복한 느낌으로 표현

하였다.

1944년 벨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작품들은 한 여인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적인 그림을 남겨 그가 최고의 사랑꾼임을 보여 주기도 한다. “예술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샤갈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 소재는 다양했으며, 생활상에 담겨 있는 모든 감정은 화폭위에 고스란히 전해 진다.

우울하고 가난했던 유년시절의 환경적인 기억, 자주 등장하는 생선모티프는 청어가게 점원이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어머니는 깊은 그리움을,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악기는 바이올린 연주자인 삼촌의 상징이었다.

샤갈의 초기작은 주로 자화상과 인간의 고통을 주제로 시작되었고, 동유럽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그림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대인의 학살등 비극적인 사건을 체험을 경험한 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 나간다.

특이할 만한 작품 중 (손가락 7개 인 자화상)은 7이란 숫자에 종교적인 의미를 둔다. 7개의 쫓대 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루어 낸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작품은 붓을 든 자신의 모습에 7개의 손가락을 그렸고, 7월 7일생

인 그의 탄생도 내포된 기발한 상상력의 종합적인 작품이다.

‘마르크 샤갈’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수식어는 <색채의 마술사>다. “색상이 전부입니다. 색상이 옳을 때 형태가 옳습니다. 색상은 모든 것이고, 색상은 음악과 같은 진동입니다” 샤갈의 말 처럼 모든 색들은 그의 감정을 통해 던져지는 자연스런 무의식의 표현이며 영혼의 유희이다.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적인 대비와 환상의 세계로 유도하는 심연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파랑은 우리의 마음을 무한대로 넓혀 준다. “빛과 색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는 사람은 샤갈 뿐이다” 라는 피카소의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샤갈 작품의 색은 곱고 아름답다.

러시아인 그의 고향보다 프랑스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생을 마감하는 98세(1985년)까지 샤갈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작품으로 충만된 생의 희망을 그렸으며, 니스에 그의 86세 생일에 샤갈 박물관이 개관 되었다.

형식이 없는 그림의 형식,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신비주의적 4차원의 세계를 그리며 우리를 무한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마르크 샤갈.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린 삶의 표현과 사랑이라고 생각된다. 글이경수





강명진



고경호



강영일



김태욱



박미연



베네딕드양



주선희



정동현



박영구



Grace Yi



에스더 심



황영아

## 작가들의 창조적인 ‘자연’의 표현들

### The Voice of Nature

리앤리 갤러리 개관 20주년 특별전  
1월 21~2월 10일, 21일 리셉션

2023년 새해의 첫 전시회는 리앤리갤러리 (이아그네스)의 특별 기획전 ‘The Voice of Nature’가 1월 21일부터 2월 10일 까지 열린다. 올해로 갤러리 개관 20주년을 맞는 리앤리갤러리의 첫번째 프로젝트가 될 이번 전시회에는 로컬 작가 18명의 작품들이 희망찬 새해의 벽두를 장식한다.

‘자연’을 주제로 전시 참여를 작가들에게 오픈하여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에는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사진, 믹스드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구상과 추상 작품들이 전시장을 메운다.

작가들은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 ‘자연’을 보고 느끼며, 그 속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는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자연의 사실적인 표현을 재현하기도 하고, 죽어가는 나무와 숲 속에서 응축된 자연의 역사와 깊이를 만나기도 한다. 사계절의 순환과 대자연의 변화되는 아름다움 속에서 보여지는 희생적인 사랑과 생명을 배우기도 하

고, 그 속에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미래의 희망적인 메세지도 작품으로 표현한다. 방대한 자연이란 주제 앞에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된 작품들 속에는 대지와 꽃, 잎새와 나무, 물과 바람 등을 소재로 자연이 주는 감사함과 경이로움의 표현과 자연을 통해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는 삶의 이야기도 보인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는 장인경, 정동현, 황영아, 정은실, 주선희, 강명진, 강영일, 김태욱, 샘리, 김연희, 고경호, 박미연, 박영구, 김은옥, 에스더심, 베네딕드양, 양문선, 그레이스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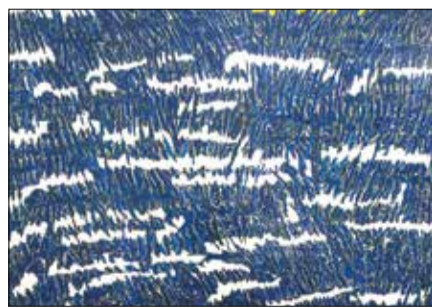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메마름과 각박함 속에서 찾아올 첫번째 기획전 ‘The Voice of Nature’(자연의 소리)는 자연을 통한 마음의 여유와 그 속에서 찾게 되는 힐링,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의 선물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 ▶기간: 2023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
- ▶장소: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 ▶문의: (213)365-8285
- ▶리셉션: 2023년 1월 21일(토) 오후 2~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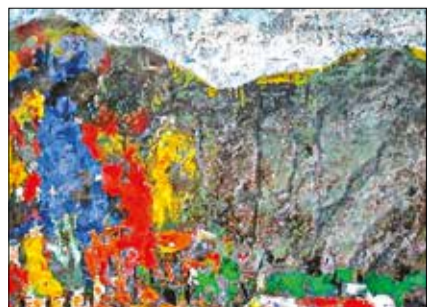
글 이경수



김연희



정은실



김은옥



양문선



샘리



장인경

1월 추천 詩

새사람

나태주(1945~)

새해 새날입니다  
어제 뜬 해 다시 뜨지만  
새해 새날입니다

어찌 새해 새날입니까?  
새 마음 새로운 생각이니  
새해 새날입니다

삼백 예수 다섯 개  
우리 앞에 펼쳐질  
디딤돌이거나 징검다리

그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정성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삼백 예수 다섯 날  
모두 보낸 다음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했다 참 잘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새해 새날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우리 모두 오늘은 새사람입니다

〈해설〉  
2023년 이제 또 다시 해님과 달님 삼백예수 다섯개나 공짜로 선물 받습니다.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를 덤으로 받습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황송할 뿐입니다. 다만 두 손 가지런히 맞잡고 감사 드릴 따름입니다. 새해 엔서로에게 디딤돌이나 징검다리가 되게 하소서.

추천작가  
**이정아(본명 임정아)**  
-서울 경기여자 중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  
-1985년 미국 이민 -1997년 한국 수필 등단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심사위원(2008~2012)  
-재미수필문학가 협회장 및 이사장(2009~2012)  
-현 국제펜한국본부 미서부 지역회 부회장(2021~)



이정아의  
이달의 수필

오늘의 운세

가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본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오늘의 운세만큼 장수하는 연재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읽는 이가 많다는 소리일 터. 크리스천인 나는 오늘의 운세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 읽지는 않는다. 물론 매일 찾아 읽지도 않는다. 어찌다 그 난을 보게 되면 읽는다. 오늘은 영명하신 처녀 철학 관장님이 뭐라고 뻔한 말씀을 하셨나 하며 보는 것이다.

오늘 자 신문에 난 운세를 보니 (31년 사소한 일에는 참견 마시라 43년 재테크에 관심이 늘어나네 55년 추진 중인 일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 67년 다방면에 기회가 올 수도 79년 동료와의 불화로 하자가 발생되고) 이렇게 쓰여있다. 오늘의 운세는 구체적이지 않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소리이다. 운세가 아니라 어른의 당부 정도이다. 우습지 않은가?

그런가 하면 금년 89세이신 친정어머니의 운세는 대신 봐드리려 해도 없다. 늙어서 세상 다 살았으니 운세를 볼 필요 없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오늘의 운세 없이도 스스로 운명을 다스릴 내공에 이르렀다는 뜻인가?

이곳에 사는 동창 하나가 한국 방문 시 대학로의 한 점 집에서 본 점이 용하다고 감탄에 감탄을 했다. 그녀가 그렇게 감탄을 하고 전적인 신뢰를 하는 걸 보니 아마도 제 삶을 잘 맞춘 모양이었다. 그녀는 울여름 휴가를 내어 한국에 나간다고 한다. 말을 들어보니 그 점집에 또 가려는 모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이다.

동창들이 모이면 온갖 카운슬링은 도맡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일은 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상담한답시고 점 집에서 줄줄이 자기 이야기 다 늘어놓았겠지. 가끔 동창들이 모였을 때 우리들은 그 친구 앞에서 이 고민 저 고민을 털어놓는다. 친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특별한 처방 없이 잘 듣기만 한다. 옆의 친구들도 남의 사생활이 궁금하니 경청을 하다가 맞장구치다가 하면 의사의 입을 통하지 않아도 저절로 결론이 유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제 속내를 후련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치료가 되고, 결국은 자신이 치료를 하는 셈이다.

연말연시엔 하루 운세뿐 아니라 일 년 치 새해 운세 풀이도 나온다. 오늘의 운세와 별다를 게 없는 게, 물가에 가지 말라거나 사람 조심 문서 조심하라는 하나 하나 한 조언이 대부분이다. 어느 날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별자리 운세와 아날로그 세대를 위한 띠별 운세가 뜬다. 한국의 날짜와 이곳의 날짜가 시차가 있어 두 번씩 뜨기도 한다. 솔직히 헛갈린다.

어느 날엔 운세가 빠지기도 한다. 그러면 너무 섭섭해 말고 신문사에 전화 걸지도 말자. (우리 집엔 바둑해설이 빠지면 전화를 거는 이가 있다.) 운세에 재미 이상의 의미를 두어 연연하면 운세가 인생을 좌지우지할지 모른다.

매일이 마지막날이듯 간절히 성실히 살다보면 인생은 풀리게 되어있다.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모두 화이팅!

영원한 디바 인순이 폐창가 카지노 서밋에서 콘서트



2월 18일 오후 6시

괄괄한 목소리, 시원한 가창력으로 이름난 '영원한 디바' 인순이가 2월 18일(토 오후 6시) 폐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갖는다.

인순이 공연은 폐창가 카지노의 최신 대형 공연장인 '폐창가서밋' 에서 단독 콘서트로 열린다.

인순이는 70년대 3인조 걸그룹 "희자매"로 데뷔했다. '실버들' 이라는 노래로 가요순위 7주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솔로 가수로 변신한 인순이는 83년, 공전의 히트곡이자 40년째 노래방 애창곡인 '밤이면 밤마다' 로 큰 대중적 인지도를 얻는다.



댄스, 트로트, 재즈, 팝, 모든 장르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인순이는 96년 박진영과 작업한 '또' 로 40대의 나이에 가요순위 10위권에 들었다. 다양한 시도와 콜라보레이션의 아이콘으로도 유명한데, 2004년에는 조PD의 히트곡 '친구여' 에 피쳐링으로 참여해 큰 인기를 모았다. 그녀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존재감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녀의 노래로 착각할 정도다. 2006년에 카니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위의 꿈' 은 원곡보다 유명한 곡이 됐다.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에게 사랑받는, 영원한 디바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완벽히 어울리는 인순이 콘서트 티켓 가격은 80달러부터다.

전화(714) 232-0000 또는 온라인(KoreanConcert.net)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폐창가에 전화문의 (888) 810-8871 하거나, 웹사이트 (pechanga.com) 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폐창가 제공



# 세계인의 명절 음식

## 지구촌 곳곳에서는 명절을 맞아 어떤 음식을 먹을까

대망의 2023 새해가 시작됐다. 한인들에게 새해 풍경이란 온 가족이 모여앉아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일 것이다.

멸치 혹은 소고기를 우려낸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가래떡을 넣고 하얀색과 노란색으로 어우러진 달걀 지단을 올려 정성스럽게 만드는 떡국을 먹어야만 새해를 맞아 나이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떡국 없이는 한인들의 새해 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처럼 전통 음식은 그 나라의 명절 문화에서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지구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새해를 포함한 각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음식으로 알아보는 다른 나라들의 명절 문화를 소개한다.

### 멕시코 타말레

멕시코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온 가족들이 모여 타말레(Tamale)라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타말레는 옥수수 껍질(silk) 안에 마사(Masa)라고 하는 옥수수로 만든 도우를 넣고, 그 안에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 콩, 야채 등의 필링을 넣어 찌 먹는 멕시코 전통 음식이다. 타말레를 만드는데는 이들이 꼬박 걸린다. 마사를 준비하고, 필링을 준비하고 옥수수 껍질 위에 마사를 얹고, 그 위에 필링을 넣은 뒤 옥수수 껍질로 정성스럽게 감싼 채로 커다란 냄비에 찌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한 뒤 김치를 나눠 갖는 한인들의 문화와 흡사한데, 한인들 못지않게 가족간의 정이 끈끈한 멕시코인들의 가족 문화를 엿볼 수 있다.

### 중국 핫팟

중국인들은 최대 명절인 음력설에 만두를 빚거나 찹쌀가루를 알 모양으로 빚어 넣어 끓인 탕위안을 주로 먹는데, 최근 젊은 층들은 중국식 핫팟을 더 즐겨 먹는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샤부샤부'로 더 잘 알려진 중국식 핫팟(Hot Pot)은 중국식으로는 '훙궈'라고도 불리며,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면 언제나 즐겨 먹는 음식이다. 크게 북경식과 사천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물도 담백한 백탕과 매운 홍탕으로 나뉜다.

백탕은 고기나 야채로 만든 뽀얀 육수로 한식의 사골 육수와 흡사하며, 홍탕은 여기에 두반장과 고추기름을 넣어 매운맛을 낸 수프 베이스다. 한편 대만식 훙궈는 1인용 훙궈로 서브되어 개인이 먹기 더욱 편리하다.

### 필리핀 수만

해마다 11월 1일, 필리핀은 카톨릭 성인을 기리는 만성절(All Saints' Day)을 기념하며, 다음날인 11월 2일은 위령의 날(All Souls' Day)로 기념한다.

만성절과 위령의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꽃과 촛불로 묘지를 장식하고 함께 밤새도록 시간을 보낸다. 이때 수만(Suman)이라는 전통 간식을 즐겨 먹는다. 바나나 잎에 찹쌀과 코코넛, 설탕을 넣고 찐 음식인 수만의 모양은 멕시코 타말레와 비슷하며, 맛은 찹쌀떡과 흡사하다.

### 일본 오세치

한국의 이웃 나라 일본은 음력설 대신 양력설인 1월 1일을 새해로 기념한다.

일본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알록달록 화려한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오세치라는 음식을 먹는다. 오세치는 구이와 초 절임, 조림 요리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음식을 큼직한 런치 박스에 담아 먹는 요리로, 다양한 조리법으로 준비된 요리들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떡국과 유사한 오조니라는 일본식 떡국, 샤브샤브와 비슷하지만 쫄면이 소고기와 채소를 넣고 익혀 먹는 스기야끼도 설에 즐겨 먹는다. 홍서지는 기자

###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 라디오 서울·미주 한국일보 기자 / 현 공인회계사·슈퍼맘 / 소셜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타말레는 옥수수 껍질 안에 마사라고 하는 옥수수로 만든 도우를 넣고, 그 안에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 콩, 야채 등을 넣어 찌 먹는 멕시코 전통 음식이다.



타말레를 만드는데는 이들이 꼬박 걸리는 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한 뒤 김치를 나눠 갖는 한인들의 문화와 흡사하다.



중국 요리 핫팟은 향신료를 넣은 국물을 끓여 쇠고기나 양고기 꼬치로 된 음식을 담가 익혀 먹는 요리다.

# 애견 산책은 1주에 2~3번, 하루 10~15분 적당

나갈 수 없다면 집에서 놀아주기  
골든리트리버 등은 하루 운동량 많아  
소변은 6~8시간 간격이 적당  
노견은 방광 약해져 3~4시간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때마다 밥을 챙겨줘야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동물병원에서 건강 체크나 예방주사를 맞춰야 한다. 특히 가족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애완동물을 챙겨줄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수일 동안 맡아줄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가족 여행을 포기하거나 가족 중 한 명은 집에 남아 개를 돌봐야 할 때도 있다.

집안에서 키우는 애견은 운동이 필요하고 때맞춰 용변도 봐야 한다.

크기나 품종에 관계없고 또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개들은 산책이 필요하다. 간단한 산책도 좋고 또 함께 달리는 것도 좋다. 잠시 용변을 위해 산책을 해도 좋다. 애견 건강에 필수다.

### 얼마나 자주 산책해야 하나

‘PetMD’에 따르면 4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개 품종 ②나이 ③장시간 산책을 견딜 수 있는 상태 ④주인의 시간 등이다.

개 품종마다 스타일이 모두 다르다. ‘미국 케넬 클럽’에 따르면 어떤 개는 하루 한 번 정도면 족하지만 어떤 품종은 하루 3번 산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골든리트리버 또는 도벨만 핀셔스와 같은 스포츠 견이나 가드견은 매일 많은 양의 운동을 해야 한다. 반면 페킹기스와 같은 토이견은 운동량이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린 개들은 노

견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넘친다. 더 많이 걸어야 한다. ‘PetMD’는 4살까지 애견은 노견보다 더 잘 뛰어 놀아 활동량이 더 많다고 밝혔다.

개도 당뇨병과 관절염을 앓는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스타미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운동량이 줄어들 것이고 산책에도 덜 적극적이다.

### 얼마나 걸어야 할까

‘PetMD’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면 하루 20~30분은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애견이 과체중이거나 기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10분 정도에 그칠 것이다. 애견의 걷는 속도와 시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때로는 견주에 따라 개 산책이 결정되곤 한다. 부지런해야 개들도 덕을 본다든 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 산책 시간을 10~15분 정도로 권장한다. 1주일에 2~3번 산책한다.

견주가 정말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집안에서 10~15분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놀아주는 방법이야 주인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매일 걷지 않는다고 해서 개에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다. 대신 걷는 것을 대체할 방법은 강구해야 한다고 ‘벳스트리트’은 전했다. 집 복도에 공을 던져 뛰게 할 수도 있다.

### 걸으면서 냄새를 맡으려 하는데

개들은 걷다가 냄새를 맡느라 멈춰 서곤 한다. 어떤 개가 이곳에 ‘불일’



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다. 또 그 자리에 표식을 해두고 싶어 한다. 수컷들은 특히 다리를 가능한 높이 들어 지나는 개들이 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는 높이까지 ‘불일’을 보려고 한다. 또 땅바닥을 긁어 냄새로 표식을 남기기도 한다.

개 발에는 체액 분비 샘이 있어 땅을 긁어 그곳에 체액을 바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나

‘퓨리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견은 하루 3~5번 용변을 봐야 한다.

대부분 수의사들은 6~8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책을 할 때는 항상 영역 표시를 하느라 여러 번 소변을 볼 것이다.

강아지들은 성견 보다 방광이 작다. 따라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된다.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노견은 소변을 오래 방광에 담아둘 수 없다. 따라서 소변을 자주 내보내야 한다. 만

약 과체중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들은 더 자주 소변을 봐야 할 수도 있다.

노견을 키우는 견주는 가끔씩 노견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도 안된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소변을 참기 힘들다. 개도 마찬가지다.

노견은 매 4~6시간 마다 한번씩 소변을 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앞서 말한대로 품종이나 크기 무게에 따라 횟수는 다를 것이다. 또 건강상태도 중요하다.

불임 수술을 받은 암컷은 나이가 들면 ‘USMI’라는 상태가 시작될 수 있다. 젊었을 때처럼 소변을 참지 못할 수 있고 특히 누워있을 때 요실금 같이 소량을 찔끔 났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발견한다면 수의사를 찾는 것이 좋다. ‘USMI’ 증상은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다.

###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야 한다면

하루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는 가정들이 많다. 이런 때 애견의 용변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친구나 이웃, 친척의 도움을 받아 밖에서 용변을 보게 해야 한다.

개는 오랫동안 용변을 찾을 수 없다. 사람처럼 용변을 오래 참으면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개에게 용변 참기를 강요(?)할 수도 없다. 만약 낮에 일을 해야 한다면 애견 데이케어 센터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소변 색 관찰하기

개도 소변으로 어느 정도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해하거나 주인을 바라볼 때, 붉거나 검은 색 비정상적 색깔의 소변을 볼 때, 냄새가 심하게 날 때, 물을 너무 많이 마실 때, 아무 데나 소변을 볼 때, 소변을 흘리고 다닐 때, 항문을 핏거나 바닥에 문지를 때는 동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존김기자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US메트로뉴스  
usmetronews.com

광고·구독·배달 (562) 538-8581  
contact@usmetronews.com





우리 주변에는 동네 하이킹 코스가 많다. 올해 멀리 가지 않고도 건강을 챙기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 공원에서 길건너 산길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 풀러튼, 부에나파크의 인기 트레일

‘Ralph B Clark Park Trail’ to ‘Trail Head to H2O Tower’

거리: 2.8마일 / 난이도: easy to moderate (쉽거나 중간)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서 즐기는 하이킹 이번에는 풀러튼, 부에나파크, 라하브라 주민들이 일상으로 즐겨 찾는 ‘랄프 클라크 리저널 파크 (Ralph Clark Regional Park) 원형 트레일’ 과 그와 연결돼 오를 수 있는 ‘트레일 헤드 투 H2O 타워 트레일’ 을 소개한다.

로즈크란즈(Rosecrans) 길에 있는 ‘랄프 클라크 파크’ 는 이지역 한인들이 즐겨 찾는 운동 코스이다. 매일 아침이면 공원 호수 동쪽에서 수십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모여 30여년째 체조를 하고 있고, 공원 내의 포장도로와 언덕길로는 아침마다 건강을 챙기는 한인들의 걸음걸이가 활기차다.

이번 트레일은 랄프 클라크 파크의 언덕 길을 따라 공원을 한바퀴 돈 후에 공원 정문으로 다시 나가 로즈크란 길을 건너 보이는 흰색 물탱크까지 오르는 연결 하이킹 코스이다.

우선 랄프클라크 트레일이다. 파크 정문 입구로 들어가 좌회전을 하여 끝까지 가서 호수 앞의 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언덕으로 올라 트레일을 시작한다. 공원입장 주차료는 5달러인데 부담이 된다면 로즈크란

길에 주차를 하고 길쪽에 있는 랄프 클라크 트레일 입구로 들어와도 된다.

트레일은 흙길로 잘 관리가 됐고 랄프 클라크 공원과 골프장을 좌우로 보면서 1마일 정도로 공원을 한바퀴 돌도록 되어 있다. 아침이면 조깅이나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트레일 흙길이 끝나면 공원내 포장도로로 내려가 테니스장을 지나 공원 입구로 가서 로즈크란 길로 다시 나선다. 여기서 핸드폰의 맵(Map) 에 ‘Trail Head to H2O Tower’ 를 치면 트레일 맵이 뜬다. 공원을 나서 맞은 편의 소방서 쪽으로 로즈크란 길을 건너 왼쪽으로(Beach 길 방향으로) 내려가면 곧 오른쪽으로 트레일 입구가 나타난다. 나무 펜스가 운치있게 연결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조금 오르면 LA다운타운까지 전망이 보이고 주택가와 마주친 길에는 ‘Public Trail’ 이라는 안내판이 서있다.

여기서 포장도로인 Muir Trail Dr 를 건너 계속 오르면 커다란 흰색 물탱크까지 오르게 된다. 이곳에서 전망을 즐기고 다시 돌아내려오면 된다.



Trail Head to H2O 중간에 있는 Public Trail 팻말.



시간을 맞추면 저녁노을이나 아침 해가 뜨는 광경도 한가롭게 즐길 수 있고, 체력을 키우며 조깅을 하기도 좋은 코스이다.

경기도 남가주 산악반 김인종



나무펜스가 운치 있는 To H2O trail.

#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 우리 커뮤니티를 꿈꾸며...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  
수석 코디네이터

2023년, 어느새 5년이다. 5년 전인 2018년, 현재 일하고 있는 미국병원 암센터에 새로운 연구소가 생기면서 코디네이터 중 한 명으로 팀에 합류했다. 새로운 연구소는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을 연구하는 곳이었다. '헬스 에퀴티'라는 영어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다. 이를 번역한 '건강 형평성'이란 한국어마저도 낯선 채로 첫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다.

건강 형평성이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나 인구집단 간에 불공평한, 또한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건강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흑인의 평균 수명이 백인보다 짧다거나,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은 부유한 지역 주민들보다 특정 질병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등이 건강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다.

매우 부끄럽지만, 이런 예시들을 처음 들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면 더 많이 아프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

했었다. 5년 전의 '김 코디'는 건강 불평등, 건강 격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 문제를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연구소 박사님들이 지도한 장을 보여주셨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빨갛게 표시된 지도였다. 유방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주소지를 작은 점으로 찍었는데, 한인타운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붉게 나타났다. 물론 한인타운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도가 높고,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한인타운에 한인들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는 말하고 있었다.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람들,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막지 못한 죽음들이 LA 한인타운에 유난히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인근 지역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율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여성

의 유방암 검사율은 평균 79.8%, 백인은 79.4%, 아시아인은 69.9%다. 미국 의료제도가 한국보다 복잡하다고 해도,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해도 평균 검사율 격차는 너무 컸다. 유방암은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조기 발견할 경우 5년 평균 생존율은 90% 이상이다. LA 한인들의 유방암 검사율은 왜 낮을까, 왜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을 늦게 발견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더 아프고 빨리 죽을까.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같은 조사에서 암 검사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프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정기검진, 특히 암 검사의 경우 증상이 없을 때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다는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이후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암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고,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 검사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4년여가 지났다.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 종종 예전 무료 행사 관련 자료를 보고 전화가 걸려 오기도 한다. 알고 있는 정보로 안내를 해주다 보면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하신다. '김 코디',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싶다.

최근 마이클 마멋 박사의 '건강 격차'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다. 영국의 공중보건학자인 마멋 박사는 건강 불평등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다. 책에 소제목으로 쓰여진 "평등한 사회에서는 가난해도 병들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와 한참을 쳐다봤다. 그런 한인사회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는 격려로 들려서 든든했다.

적어도 2023년에는 정보가 부족해서, 저소득층이라서, 정기검진이 가능한 암 검사(유방암, 자궁암, 대장암)를 받지 못하는 한인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인 사회, 우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기 위해 '김 코디'는 올해도 열심히 달려야겠다.

**한눈에 보는 암 예방의 달**

암 연구 및 예방 교육 기관들은 1년 중 10개월을 '암 예방 및 인식의 달'로 정하고 커뮤니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3월은 대장암 예방의 달,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 등으로 지키며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건강한 2023년을 보내자는 의미로 암 예방 및 인식의 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

**암 예방 및 인식의 달 (Cancer Awareness Months)**

<b>1월</b> 자궁경부암	<b>2월</b> 전국 암 예방의 달 / 담낭 및 담관암	<b>3월</b> 대장암 / 신장암 / 다발성 골수종	<b>4월</b> 식도암 / 두경부암 / 고환암	<b>5월</b> 전국 암 연구의 달 / 방광암 / 뇌암 / 흑색종 및 피부암	<b>6월</b> 전국 암 생존자의 달
<b>7월</b> 육종 및 골암	<b>8월</b>	<b>9월</b> 어린이 암 / 백혈병 및 림프종 / 난소암 / 전립선암 / 갑상선암 / 자궁암	<b>10월</b> 유방암 / 간암	<b>11월</b> 위암 / 폐암 / 췌장암	<b>12월</b>

김동희

현재 미국병원 암센터 커뮤니티 아웃리치팀 수석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 전 미주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자. '미국 엄마의 힘' 저자. 연락처: (213)545-1014

##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22)

### Myeloma: 골수종 (마이엘로마)

혈액암의 한 종류로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해 나타나며, 다발성 골수종 또는 형질세포종이라고도 한다. 골수종이 일어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만 유전적 요소나 면역계 이상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Sarcoma: 육종 (사르코마)

폐나 간 등의 실질 장기와 몸을 지탱하는 뼈와 피부를 제외한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관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며 감싸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 Lymphoma: 림프종 (림포마)

림프 조직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종양을 말하며 림프 조직이 아닌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림프 조직이 아닌 부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림프절외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주로 코 속과 목구멍이 연결되는 곳이나 위장관·뇌 등에 잘 나타난다.

### Leukemia: 백혈병 (루케미아)

백혈구가 종양성으로 증식하여 병적인 유약 백혈구가 혈액 속에 유출하는 질환이다. 조혈조직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으로, 발병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병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 두마리 토끼 다~잡는 한 해 되세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길  
새해에는 더 번창하시길  
활기찬 토끼의 새해  
건강과 성공  
두마리 토끼를 다~잡는  
특별한 한 해가 되세요.



One Relationship at a Time





# 여름을 시원하게!

